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120경기도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합의문 서명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민희 120경기도콜센터 상담사 대표 등 참석자들이 서명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콜센터 상담원 정규직 전환

이재명 도지사, 상담사 대표와 합의문 서명... "위탁사업 영역의 첫 정규직화"

경기도콜센터에서 근무하는 민간 위탁업체 소속 상담사 67명이 7월 1일자로 전원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됐다. 지난 1월 경기도콜센터 상담사의 '정규직(공무직)' 전환을 약속한 이재명 지사의 노력이 6개월 만에 현실이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박민희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대표와 이련

내용을 담은 '120경기도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합의문'에 서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4일 제3차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열고 그동안 경기도와 상담사간 이견을 보였던 정규직 전환 대상, 정년, 보수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룬바 있다. 이날 합의안에 따르면 전환 대상은 67명 전원이며 정년은 60세, 보수는 공무직 가 직군(일반직군)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3월 정규직 전환을 위해 사용자위원회와 근로자 대표위원, 외부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구성하고 약 3개월 동안 3차례 협의회와 4차례에 걸친 소위원회를 거치는 등 충분한 논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상담사의 보수와 직결된 직군 결정 부분에서 노사 양측의 이견이 있었지만 기존 공무직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담사

에게 가 직군(일반직군)을 적용하는 대신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근무조건을 개선하는데 공감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박민희 상담사 대표를 포함한 상담사 10여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콜센터상담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축하했다. 이 지사는 "약속을 지켰다는 말이 있지만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축하한다"면서 "불안정성을 극복

하고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이번 전환은 위탁사업 영역의 첫 정규직화로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정부,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과 같은 입장의 사람들이 더 쉽고 안전하게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것이 동료의식이고 노동자들의 연대의식이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은 이 지사는 오전 별도의 기념식 대신 근무대 소모임으로 학교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던 가평군 조종중고등학교를 찾아 방음벽 설치 지원을 약속하며 도민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김진태 기자**

아동돌봄공동체사업 추진

경기, 마을내 유휴공간 활용... 작은도서관사업 50곳서 실시

민선7기 경기도가 아동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 중인 '아동돌봄공동체', '작은도서관' 사업이 이르면 7월 중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우선 만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은 마을 내 유휴공간을 활용에 진행된다. 도는 앞서 2월 공모를 통해 아동돌봄공동체 11곳을 모집했다. 현재 공동체 운영 주체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워크숍이 3회씩 진행 중이며, 7월 중 돌봄 공간 마련을 위한 리모델링을 시작할 예정이다. 돌봄 공간은 한 달여의 리모델링이 끝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공사 기간 등의 기간을 고려하면 9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돌봄 공간에서는 아동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안전관리교육(심폐소생술 교육) 등 기본교육 실시와 긴급·일시 돌봄, 육아용품貸, 등·하원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한다. 도는 2022년까지 70곳을 조성한다. 이어 가정과 일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의 '돌봄 사각'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사업은 도내 작은도서관 50곳에서 7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1~6학년(학교 밖 아동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각 도

서관 별로 홈페이지나 안내문 등을 통해 참여 아동 수를 조사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각 도서관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자원봉사자가 운영한다. 도서관 자율선택에 따라 아이들을 위한 독서토론, 북아트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만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도 도내 전역에서 추진된다. 현재 도내 5곳에 센터가 설치돼 있으며, 올해 안으로 21개 시군 31곳에 설치를 완료한다. 센터에서는 상시·일시돌봄, 등·하교 지원,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다. 도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아동돌봄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5일 아동돌봄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 1일 전담조직인 아동돌봄과를 신설했다. 이어 2일에는 도내 31개 시군 돌봄관련 부서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참여하는 '2019년 경기도 아동돌봄정책 시군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 관계자는 "아동돌봄 정책은 사업별, 기관별로 각각 추진될 것이 아니라 지자체, 학교, 민간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협력도 필요하다"며 시군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부탁했다. **김진태 기자**

군포,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운영

경기도내 자치단체 중 최초... 상시 인권상담

군포시가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운영한다.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상시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 내에 지역 내 학교나 청소년 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하는 동시에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 행복일터 발굴(협약),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사업장 환경 개선, 노동인권이 개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교육 강사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이 센터 주관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센터(군포로 578, 3층)를 찾아가면 되며, 자세한 이용 정보는 전화로 문의(031-360-0735~6)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대의 군포시장은 "센터를 통해

파악한 지역 청소년들의 노동 실태와 인권침해 정보를 바탕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옹호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사업을 개발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노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군포가 앞장서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현재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내 자치단체는 군포를 포함해 10개 시·군이지만, 실제 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도내에서 군포가 유일하다. 점진적으로도 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군포 외에 4개 자치단체(광역 3곳, 기초 1곳)에 불과하며, 관련 조례는 총 37개 자치단체(광역 5곳, 기

초 32곳)에서만 제정돼 있다. 한편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는 지역내에서 1020 세대들과 '인권 옹호, 생태적 삶, 나눔의 실천, 자립의 다양성(인생나자)' 실천 활동을 해온 사회적협동조합 인생나자작업장이 위탁했다. 시에 의하면 공모를 통해 센터 위탁 기관으로 선정된 인생나자작업장은 오랫동안 청소년 사업을 시행하며 인권 분야에서 다양한 우수 활동사례를 축적한 기관이다. 기타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의 내용 등 더 자세한 관련 정보는 시청 청소년청년정책과에 문의(031-390-0685)하면 알 수 있다. **박정민 기자**

남양주시, 19억 상당 토지 소송 승소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조안면 송촌리 789-1번지 외 9필지 5,254㎡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일 전했다. 소송에 관계된 토지 10필지는 현재 공시지가로 약 19억원에 상당한다. 1913년 송촌리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졌으나 1962년 양주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고 이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1981년에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남양주군으로 이전 등기되어 관리해오던 토지로 현재 연세중학교 운동장 일부와 송촌2리

노인정 및 도로 등 대부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송촌1리에서 시 소유의 토지를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토지 사정 당시 송촌1리 등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송촌리가 1리와 2리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송촌1리 주민 일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회를 거쳐 소송 제기하는 등 원고의 대표성과 공통 규약 상의 적법한 총회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소의 부 적법성을 찾아서 재판부에 적극 변론하여 결정적인 요인으로 시가 승소 판결을 이

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유지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년간 묻혀 있는 은닉 재산을 찾아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재산관리 인력의 전문화를 통하여 시 재정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해 10월, 지난 3월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년간 방치되었던 은닉 재산을 찾아 민사소송 등에서 승소하여 7억원 상당의 시 재정 확충에 성과를 거두었고, 이런 내용이 모범사례로 발표되는 등 타 자치단체에서 좋은 사례로 호응을 받고 있다. **손복선 기자**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에너지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국민 곁에 KEA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이 더욱 풍요로운 우리의 내일을 만듭니다.
스마트한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기후변화대응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

서울시, 폭염도 재난... '서울형 긴급복지'로 취약계층 지원

생계비·의료비·공과금 등 최대 300만원... 옥탑방·쪽방·고시원 주민, 어르신 등 위한 '무더위쉼터' 폭염특보시 연장 운영

서울시가 올해 여름 '서울형 긴급복지'로 2억5,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지원을 강화한다. 에어컨 등 냉방용품과 냉방비부터 열사병 등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의료비까지 폭염나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으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지원해오고 있는 가운데,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보고 올 여름부터 '폭염'과 관련된 지원만을 위한 예산을 처음으로 별도 편성해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 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여름철(7~8월)을 맞아 폭염·폭우·열대야 등에 대비한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계획'을 발표, 이

기간 동안 옥탑방·고시원·쪽방촌 거주자와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등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옥탑방·고시원 등 주거취약 지역 거주자 및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우리동네주무관, 복지플래너, 통·반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이웃·나눔가게

등 복지공동체를 통해 민관이 협업을 집중 발굴·조사한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고독사에 대응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자 지역주민들과 손잡고 위기가구 발굴에 앞장선다.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국가 긴급복지와 서울형 긴급복지 등 제도적 지원여부를 검토해 맞춤형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2억5,0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생계비·의료비·공과금 등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냉방용품의 경우 작년 지원했던 선종기, 콜매트 등에 더해 에어컨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폭염에 따른 전력이나 수도물 사용 증가로 공과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에는 공과금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

더불어 시는 어르신·쪽방주민·고시원·노숙인 등 폭염 시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은 이들을 위해 기존의 무더위쉼터를 연장 운영한다.

시는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 취약해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거리 현수막 등 오프라인 맞춤형 홍보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배행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폭염으로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어려운 이웃들이 수월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주위에 폭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알고 계시거나 발견하실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남 기자

SK텔레콤-삼성전자, 국내 최초로 '순(純) 5G' 통신 성공

'5G SA' 패킷 교환기-코어 장비 연동 통한 5G 통신 성공 ... 2020년 예정된 '5G SA' 상용화 보폭 넓혀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최초로 5G 단독규격인 '5G SA' 패킷 교환기와 코어 장비를 연동해 순수 5G 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5G 네트워크는 LTE와 장비를 일부 공유하는 NSA(Non-standalone, 5G-LTE 복합 규격) 방식이다.

네트워크를 오롯이 5G 장비로 구성하는 5G SA(Standalone, 5G 단독 규격)는 표준화 개발 소요 시간, 비용, 자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용 초기에는 NSA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에 선보인 '5G SA'는 기존 '5G NSA' 대비 데이터 처리 효율성이 3배 높다. 대규모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5G 시대에 기대되고 있는 AR·VR·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스마트팜 등 차세대 서비스에 최적의 통신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양사가 이번에 성공한 '5G SA' 연동은 실제 고객 대상 서비스와 동일한 환경에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송수신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데이터 통신에 필요한 전 과정을 문제없이 통과해야 성공으로 인정된다.

양사는 이번 연동 성공으로 5G SA 코어 네트워크의 구조적 완결성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5G SA' 상용화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5G SA'에는 '네트워크 슬라이스'와 '기능 모듈화' 등 5G 핵심 기술이 적용됐다.

'네트워크 슬라이스'는 네트워크를 물리·가상네트워크로 각각 분리해 고객 상황에 맞춰 트래픽 품질을 보장하는 기술이다.

또한 '기능 모듈화'는 블록을 쌓듯 기능을 조합해 고객에게 신규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

아울러 △패킷 품질 제어, 전달 단계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이터 병렬 처리 기술' △성격이 비슷한 데이터를 분류·분배해 전송하는 '데이터 가속 기술' △MEC(모바일 엣지 컴퓨팅) 플랫폼에 적합한 트래픽을 자동으로 전달하는 '경로 최적화 기술' 등도 함께 적용됐다.

SK텔레콤 박진호 ICT기술센터장은 "NSA 구축 초기부터 고객에게 차별화된 통신 품질과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SA 업그레이드 기술 개발에 앞

고, 내년 상반기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삼성전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선도적으로 혁신적인 5G 기술들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개발팀 전재호 부사장은 "5G SA는 기존 NSA가 제공하지 못 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5G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며, "한국 특유의 끊임 없는 신기술 투자가 지금까지의 세계최초 신화를 이끌었듯이

5G SA 분야에서도 SK텔레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사는 지난 17일 5G 고도화 및 6G 진화 기술 공동 연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사는 고객에게 최고의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용 서비스 출시 관련 전방위적 협력을 약속했다.

양사는 5G 관련 △네트워크 기술 △혁신적인 단말과 소프트웨어 △스마트 솔루션의 공동 개발과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창은 기자

고령자 금융상품 가입시 가족에 안내문자 전송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될때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

오는 10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가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사전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품 가입 정보를 알리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고령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사전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품 가입 정보를 알리는 서비스'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안은 지난 4월18일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다.

시행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65세 이상의 고객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에 한해 가족이나 지인 등 지정인에게 고객이 가입한 금융상품명, 금융회사, 가입시점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를 안내 메시지로 전달해야 한다.

단,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 등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전문보험 계약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상품은 납입기간이 장기인 종지정인 알림서비스'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안은 지난 4월18일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다.

권(ELS·D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구조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 등에 적용된다. 이러한 상품들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ELF, ELT, DLT, DLF) 등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지정인과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며 "본인에게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될때는 청약철회권 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준비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송수안 기자

전남도, 외국 관광객 유치로 전남관광 6000만 시대 앞당긴다

전라남도는 '무안~후쿠오카' 정기노선이 1일부터 월, 수, 금, 일, 주 4회 신규 취항을 시작함에 따라 일본 방문객을 위한 여행상품으로 전남 주요 관광지 및 맛집 탐방하는 2박 3일 관광상품을 출시했다.

신규 취항 첫 날인 1일 후쿠오카에서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에 도착한 일본인 관광객 가운데 30여 명은 2박 3일 일정으로 전남 관광지와 맛집을 찾아 떠나는 전남 힐링&별미투어 관광상품을 체험한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무안~후쿠오카' 정기노선에 맞춰 일본 대표 여행사인 '한류교통여행사', 'JT비행사'와 함께 무안공항 도착 시간에 연계해 일본인이 선호하는 전남지역 명소에서 힐링과 휴식, 남도의 소문난 맛집, 카페 등을 찾아 떠나는 다양한 힐링&별미 여행상품을 준비했다.

일본 한류교통여행사 후쿠오카지사 출신인 '식의 고장, 전라남도'는 신안 천사대교와 지역 명소 곳곳을 여행하는 맞춤형 관광 상품이다.

전라남도는 또 무안공항의 해외노선 증편과 이용객 증가에 따라 '전남 관광 6천만 명 시대'를 앞당기는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현장 중심의 관광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월 3박 4일 동안 대만 온라인 여행사 '케이케이데이(KKday)'와 대만 주요 언론사(일간지 및 여행잡지사) 등을 초청해 외국인 남도한바퀴 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도내 관광 명소와 소문난 맛집 등을 중심으로 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7월 말 일본 TV 정보프로그램을 통해 60분 동안 방영된다.

오는 12~13일에는 일본 온라인여행사 '리쿠엔트레블' 관계자를 초청해 외국인 남도한바퀴를 소개하는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7월 말에는 필리핀 현지 여행사를 초청해 '무안~세부' 정기노선과 연계하는 남도한바퀴 관광상품을 홍보하는 현장 캠퍼어도 추진한다.

전라남도는 또 12일부터 열리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동안 국내외 선수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국립박물관 투어코스, 힐링&남도별미 체험코스, 유네스코 세계유산 탐방코스 등 남도한바퀴 특별상품 10개 코스를 준비했다. 3일 오후 6시 이후 온라인 판매를, 4일 현장 판매를 진행한다.

■김재오 호남본부장

| | | |
|---|-----------------------|--------------------------------------|
| 2001년 3월 15일 창간 (주)아시아일보 | 아시아일보 | 등록번호 서울 가00205(일간지) 2000년 11월 22일 |
| 발행·편집인: 권희민 편집국장 겸 총괄사무: 김용수 인쇄인: 현재오 | | |
|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99 스타빌 1304호 Tel. (02) 588-2996 / FAX (02) 855-8784 | | |
| 편집국 (02) 588-2996 | 사회부 (02) 855-8783 | 제2사회부 (02) 855-8783 |
| 편집부 (02) 588-2996 | 문화부 (02) 855-8781 | 문체부 (02) 855-8782 |
| 정치부 (02) 855-8781 | 광고국 (02) 855-8782 | 독자제도 (02) 588-2996 |
| 경제부 (02) 855-8782 | 총무국 (02) 855-8783 | 광고문의 (02) 855-8782 |
| | 고충처리위원회 (02) 855-8781 | |
| E-MAIL: nasiaibo@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asia일보.co.kr 구독료 1만5천원/1부 7000원 본지는 언론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게재합니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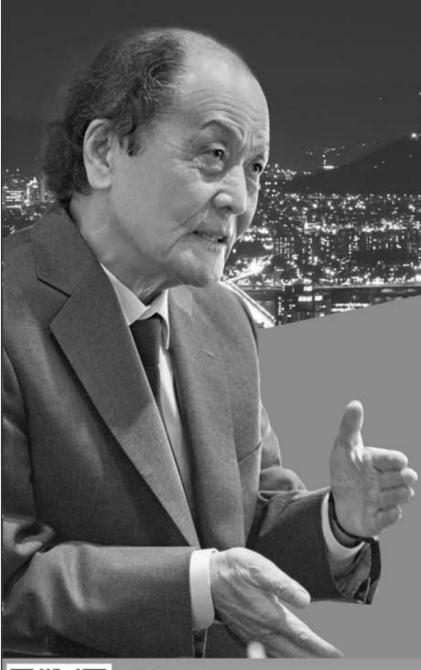
www.hnedu.co.kr
전화 031-955-7501 팩스 031-955-7500

(주)해냄에듀는 (주)해냄출판사의 교육전문출판 브랜드입니다.

www.hainaim.com
전화 02-326-1600 팩스 02-326-1624

오늘, 당신에게 대한민국이란 무엇입니까?

『태백산맥』 『정글만리』의 작가 조정래 신작



조정래 장편소설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가 있는 이후 수천 년에 걸쳐서 되풀이되어온 질문.
그 탐험의 길을 나서야 하는 게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조 정 래

천년의 질문

2019년 최대 화제작!
전국 서점 베스트셀러



3 2 1

조정래 장편소설

35만 이상의 네티즌이 함께 들으며
출간을 간절히 기다려온 작품!

거대 자본에 휘둘려 인간을 소외시킨 현 상황을 통찰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편하는 조정래 장편소설

국내 최초! 종이책과 오디오북 동시 출간!

대한민국 대표 성우들이 낭독한 조정래 신작 장편소설 『천년의 질문』
지금 네이버 오디오북에서 오디오북으로 만나보세요.

전3권
각권 410쪽 내외
사륙판
양장본
각권 값 14,800원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2만1000여명 몰려

빼어난 입지, 차별화된 상품 구성에 방문객 호평 이어져 3일부터 1순위 당해, 4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 진행

제일건설(주)이 지난달 28일 견본 주택을 열고 분양에 들어간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에 내방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강남 생활권인 판교 대장지구 마지막 민간분양 아파트인데다, 기본 제공하는 고급스러운 품목이 많은 것이 인기 이유로 꼽힌다.

제일건설(주)에 따르면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에는 오픈 후 3일간 2만1000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장미를 앞뒤 후퇴시킨 날씨 속에서도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꾸준했다. 오픈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대기줄이 이어졌으며, 상담석도 빈 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견본주택에는 84㎡A·B 2개 유닛

이 마련됐으며, 방문객들은 실내를 꼼꼼히 살펴보고 설계, 마감재, 기본 제공 품목 등을 체크했다. 어린 자녀와 함께 온 젊은층도 많았으며, 견본주택에서 진행된 여러 이벤트에 참석하며 가족들이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경기 성남에서 온 최모씨(40)는 “분당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값이 너무 올랐고, 노후화도 심해 새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판교 대장지구는 강남 접근성이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분당구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어 관심이 가며,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가 마지막 민간분양 아파트라고 들어 청약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한 상품에도 관심이 쏠려왔다.

전 가구를 남향위주로 4베이, 판상형 위주로 설계했다.

가변형 벽체를 적용해 입주자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 기존 아파트보다 10cm 높은 2.4m의 천정고를 적용한 점도 돋보인다.

모든 타입에 이태리 명품 주방가구가 적용되며, 프리미엄급 엔지니어드 스톤, 하이브리드 인덕션, 스마트오븐 등이 기본 제공돼 주방의 품격도 높였다. 시스템 에어컨, 현관 중문 등이 기본적으로 설계되는 점도 특징이다.

서울 강동구에서 들린 주모씨(45)는 “견본주택에 여러 번 가봤는데 기본으로 제공하는 품목이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 보며, 결국 실제 분양



제일건설(주)에 따르면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에는 오픈 후 3일간 2만1000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가도 더 합리적인 것 같다”며 “강남 고급 아파트를 뛰어넘는 설계, 상품 구성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 분양가는 3.3㎡ 당 평균 2299만원이며, 계약금 분납제, 중도금은 이자후불제를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다. 청약일정은 7월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당해 1순위, 4일 기타지

역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11일, 정답계약은 7월22일~24일 3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및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역의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을 공급 물량의 80% 이상에서 50%로 확대 선정하게 되면서 기타 지역의 거주자들도 당첨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일건설(주) 분양관계자는 “우수한 입지여다가 상품 고급화에도 각별히 신경을 쓴 만큼 소비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부분 분양을 연초부터 기다려온 실수요인데다 지역 내 수요는 물론 서울, 경기에서 문의가 많아 청약도 순조로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양재 화물터미널 인근인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25에 위치한다.

(분양문의:1522-5578)
■오은애 기자

효성 조현준 회장 “기술에 기술 더하겠다”

섬유·첨단소재·화학 생산기술 총괄 조직 '생산기술센터' 출범

효성이 그룹 통합 생산기술센터를 출범시켜 품질경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생산기술센터는 섬유·첨단소재·화학 부문의 핵심 공정 및 설비 기술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효성기술원,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

화학 소속 핵심 기술 인력들로 구성된 4개 팀, 26명 규모로 구성됐다.

주요 공장장 효성기술원의 핵심 기술 인력이 협업을 통해 신규 공정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기존 생산공정도 개선시켜 기술 고도화를 이룬다는 전략이다. 향후 공정 및 주요

설비들에 대한 기본 설계 전문 인력을 확보·육성하는 등 인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효성은 국내·외 섬유 관련 특허 548건, 첨단소재 관련 특허 708건, 화학 관련 특허 1,037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기술들 간의 시너지를 도모할 계획이다.

조현준 회장은 “세계 1등 제품이

곧 세계 1등 기술이라고 안주하지 않을 것, 기술에 기술을 더해 ‘기술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효성은 9개의 세계일류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스판덱스, 폴리에스터 타이아코드, 안전벨트 원사 등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창은 기자

LG전자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펫’ 출시

반려동물 털·먼지 제거...모든 방향서 공기 흡입하고 청정

LG전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고객들을 위해 새로운 공기청정기를 선보였다. LG전자는 지난달 30일 토탈 유해가스광촉매필터, 펫(Pet)모드, 부착형 극세필터 등을 추가한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펫’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청정면적 기준 62제곱미터(m2)(모델명:AS199DNP)와 100제곱미터(모델명:AS309DNP) 2종이다.

신제품은 토탈 유해가스광촉매필터를 탑재해 탈취능력이 더 강력해졌다. 이 필터는 광촉매 기술을 이용해 반려동물 배변 냄새의 주요 성분

인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트산 등의 유해가스를 누적정화량 기준으로 기존 모델 대비 약 55% 더 제거해준다. 누적정화량은 필터를 통해 제거되는 유해가스 총량이다.

이 필터는 주기적으로 형광등이나 햇빛 등에 3시간 가량 비취주면 광촉매가 빛과 반응해 유해가스를 분해시킨다. 필터교체 주기는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년이다.

LG전자는 신제품에 펫모드를 적용했다. 고객이 펫모드 버튼을 누르면 공기청정기는 오토모드 대비 풍량을

최대 70%까지 높여 반려동물의 털, 먼지 등을 최대 35% 더 제거한다. 상당과 하단으로 구성된 100제곱미터용 제품의 경우 펫모드에서 하단의 풍량을 집중적으로 높게 되는데 털과 먼지가 공기보다 무거워 실내 공간의 아래쪽에 있기 때문이다.

또 신제품은 부착형 극세필터를 사용해 쉽고 간편하게 반려동물의 털과 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 고객은 토탈 알러지집진필터 바깥에 극세필터를 씌우기만 하면 된다. LG전자는 신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10장의 극세필터를 추가로 지급한다.

■박종민 기자

KT&G ‘릴 베이퍼(lil vapor)’ 전국 주요 대도시로 판매지역 확대

KT&G가 액상형 전자담배 ‘릴 베이퍼(lil vapor)’와 전용 카트리지 ‘시드(SiID)’의 판매지역을 전국 주요 대도시로 확대한다.

지난 5월27일 출시된 ‘릴 베이퍼’와 ‘시드’는 현재 서울·부산·대구 지역 CU편의점 3,577개소에서 인기에 판매되고 있으며, 오늘부터 판매처가 인천·대전·울산·광주 등 4대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지방 25개 도시의 CU편의점 4,591개소가 추가되어 총 8,168개소로 늘어난다.

‘릴 베이퍼’는 액상 카트리지 ‘시드’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CSV(폐쇄형시스템) 타입의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이다. 특히, 1개비 진동 알림 기능인 ‘퍼프 시그널’을 적용해 사용자들이 흡연량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슬라이드를 내리면 바로 작동 가능해 첫 모금부터 풍부한 느낌을 제공한다. 마우스 커버가 함께 구성되어 있어, 입술이 닿는 부위의 위생적인 관리도 가능하다.

전용 카트리지는 일반 담배 맛의 ‘시드 토바(SiID TOBAC)’, 시원한 맛의 ‘시드 아이스(SiID ICE)’, 이국적인 맛의 ‘시드 툰드라(SiID TUNDRA)’ 등 총 3가지 종류이며, 한 개의 카트리지로 담배 한 갑 분량 흡연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에 확대되는 지역에도 출시 기념으로 제공된 ‘휴대용 충전 파우치’를 구매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휴대용 충전 파우치’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항균 기능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만족감을 얻고 있다.

KT&G 관계자는 “‘릴 베이퍼’는 시장의 관심과 소비자들의 호평 속에 성공적으로 출시할 수 있었다”며 “서울 이외의 소비자들 또한 제품에 대한 구매 니즈가 높아 판매지역 확대와 소비자 반응 등을 고려해 점진적



으로 판매처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릴 베이퍼’의 권장 소비자는 4만원이며, ‘시드’의 가격은 개당 4,500원이다.

■송수안 기자

신한카드, 환경경영체계 국제인증 획득

신한카드는 친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14001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시한 국제표준으로 친환경 인프라 구축과 자원가치 혁신 등에 노력하는 기업에 부여되는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ISO 시리즈 중 최고 수준의 인증이다.

신한카드는 친환경 카드 상품 개발, 종이영수증 디지털화, 태양광 팻

토링 등 본업과 연계한 친환경 금융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페이퍼리스 임직원 캠페인, 스마트회의실 구축, 하이브리드 업무차량 도입 등 저탄소 녹색경영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친환경경영 협의체를 구성해 환경목표 설정, 성과 분석 및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한카드의 이 같은 노력은 신한금융그룹의 친환경 경영비전인 ‘에코 트랜스포메이션 20·20’ 추진에 더욱 힘을 더하게 됐다. 비전에는 2030년까지 녹색 산업에 20조원을 투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절감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신한카드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친환경 경영활동을 더욱 확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지속가능금융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로 발돋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도박중독, 끊어야 할 줄 알지만 쉽지 않으시죠?

도박중독은 혼자 힘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유혹의 줄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1336이 돕겠습니다. 365일 24시간 전문상담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도박문제 전문상담 ☎1336

헬프라인 | 365일 24시간 운영

상담은 무료이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인터넷 상담 www.kcgp.or.kr

서울시, 나눔카 3기 시동... 2022년까지 1만대로 늘려

나눔카 전용구획 1000면 확보·통합편도존 구축·요금할인 등으로 이용 촉진... '準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서울시가 내 차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내 차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승용차 공동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7월부터 '나눔카' 3기 시대의 본격적인 막을 연다.

올해로 7년차를 맞은 나눔카는 3기 사업을 맞아 쏘카, 그린카에 더해 달카와 피플카까지 총 4곳으로 나눔카 사업자를 늘려 시민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현재 4,700대 수준의 나

눔카 대수를 3기 사업 기간인 2022년까지 1만대로 2배 이상 늘려 '準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더 가까이에서 나눔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서울시 공영주차장에 나눔카 전용구획 1,000면

을 확보할 계획이다. 녹색교통지역인 한양도성 내부에

는 세종대로, 퇴계로 등 도로공간재편과 연계해 도로 위에서 간편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게 나눔카 노상 대여소를 확대하고, 전기차량을 현

3기 사업부터 새롭게 시범도입하는 서비스도 있다. '통합편도존'이 대표적이다.

현재도 편도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각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면서 높은 가격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통합편도존'이 조성되면 사업자가 어디나에 관계없이 편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2020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총 31개소)을 중심으로 '통합편도존'을 구축하고, 4개 사업자가 대역현황을 서로 공유하는 시

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편도서비스 효율을 높여 이용요금 인하에 기여하고자 한다.

내 집에서 더 가까이 나눔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네카'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실시한다.

내집앞 나눔카 주차면을 제공하면 제공자에게는 나눔카 이용요금 50%를 할인해주고,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동네 주민들은 10%가 할인된 요

금으로 해당 차량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창업자나 장애우, 저소득층에게는 나눔카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3기 나눔카 출범을 위해 나눔카 확대와 신규 서비스,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주요 내용에 합의하고 1일 4개 사업자와 협약을 맺었다.

구원원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나눔카는 서울시의 공유정책 중에서도 손꼽히는 사업으로, 나눔카 3기를 맞이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특히 전기차량 확대, 차량공유문화 확산 등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나눔카의 역할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영남 기자

인천-서울-경기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갑질' 집중신고 받는다

지자체 별 법률상담, 분쟁조정, 법률대응 조력, 조사·수사외뢰 등 전과정 피해구제 지원

인천시는 1일부터 한 달 간 창업컨설팅업체의 접근 중개·가맹계약 대행 관련 피해 사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집중신고를 받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공정경제분야의 지방정부화 추세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창업컨설팅 업체의 권리금 사기 등 기반적인 중개·창업자 모집 등은 그 피해가 매우 커서 민생침해로

지결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3개 지방정부(인천·서울·경기)가 합심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3개 지방정부에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운영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도 함께 접수받아 피해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3개 지방정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창업컨설팅 업체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근절을

위한 전(全) 과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별로 자영업자·가맹점주와 심층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안에 따라 각 지자체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공정위·경찰 조사·수사외뢰, 법률서식 작성 지원 등 법률조력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 불공정행위 유형은 창업컨설팅 업체의 △중개·가맹 계약 체결 단계에서 허위매출자료 제공

지방법부 별도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각 센터로 직접 연락해 상담과 피해구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계기로 현장에 밀착한 광역지자체가 합심해 민생침해 및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협업의 경험을 축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3개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조해 지방정부의 공정거래행정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배용환 기자

17일 저녁 7시 30분 서울혁신파크 다목적홀(미래청 1층)에서 개최한다.

직장맘 정책에 관심 있는 직장맘·직장대디라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1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한편, 토코콘서트 행사를 위한 직장맘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 중이다. 5일까지 참여 가능하며, 직장맘·직장대디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영남 기자

서울시, 직장맘·직장대디 63.5% "육아휴직 여전히 어려워"

'회사 눈치' > '경제적 부담' > '사용 방법 잘 모름' 順

직장맘·직장대디 63.5%가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회사 눈치'가 3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경제적 부담' 21.7%, '사용 방법 잘 모름' 5.7%로 뒤를 이었다.

특히, 회사 눈치의 이유로는 '동료 대다수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74명(57.8%)으로 가장 많았고, '육아휴직 후 복귀에 대한 보장 불확실' 29명(22.7%), '복직 후 직급(직무) 변동

등의 불이익 염려'가 20명(15.6%)으로 뒤를 이었다. 직장맘·직장대디에게 필요한 서울시 지원으로 '등·하원 서비스' 25.3%, '직장맘에게 필요한 정책개발' 20.0%, '직장 내 고충상담' 14.5%, '자녀 긴급 돌봄 서비스' 12.1%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직장대디 666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등 고충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맘의 다양한 고충에 대해 공감하고 직장맘 정책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로, '직장맘 소통 토코콘서트'를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접수... 졸업후 5년 이내로 대상 확대

후 5년 이내'로 대폭 확대했다.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자이면서, 전국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1

년에 2회(상반기·하반기) 신청을 받고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31일 18:00시

까지이다.

이번 신청접수 때는 크게 2가지를 개선했다. △조례개정을 통해 졸업 후 2년에서 5년으로 지원 기간이 연장됐고,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 뿐 아니라 직업이 있는 사회초년생

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선정자에 대해 2019년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 지원하지만, 예산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는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박영남 기자

한국동서발전, 제2회 광고디자인 공모전 실시

한국동서발전(주)은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2019년 제2회 한국동서발전 광고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의 참신한 광고 디자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주제는 한국동서발전의 슬로건 '생동감 넘치는 발전소'를 바탕으로 한 △안전 △환경 △사회적 가치 3가지이다.

공모전 참여 자격에는 제한이 없

다. 접수 및 상세공모 요강은 온라인 접수 페이지(withewp.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상은 대상(1팀, 500만원), 최우수상(3팀, 각 150만원), 우수상(3팀, 각 50만원)이다. 심사 결과는 8월16일 회사 홈페이지(www.ewp.co.kr) 및 블로그(blog.naver.com/iamewp)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수만 기자

채권신고 공고 (2차)

당사는 2019년 6월 26일에 있는 당사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2019년 6월 26일자로 당사의 영업을 폐지하고, 2019년 6월 27일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완료하여 청산절차를 개시하였사오니, 당사에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하기의 주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채권신고가 없을 시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해라컨트리클럽유한회사

청산인 민상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로306번길 77(지사동))

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망 양선옥[380414-2*****, 2019년 2월 12일 사망,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33길 32-30(방화동)]의 법정상속인 1.이연희 2.이연실 3.이갑준 4.이정미 5.이영미는 위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 하고자 서울가정법원 2019년2651호로 한정승인 사건을 신청하여 2019년 6월 21일자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망 양선옥에 대하여 채권 또는 유증을 받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 및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실을 민법 제1032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한정상속인: 1.이연희 2.이연실 3.이갑준

4.이정미 5.이영미

채권신고장소: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 90(방화동)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실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인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원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영천시 오수동 산1-6, 11-8 기수: 무연77
2. 개장사유: 소유권 행사에 편입된 분묘
3. 개장후유안장소: 청계동원 천북 무상공공성충무로 457
4. 공고기간: 2019.05.22 ~ 2019.08.22(최초공고일로부터3개월)
5. 유언기간: 무연 유언장 이후 10년
6. 신고처: 영천시 북안면 송포길 104-41 권도동의 1인(010-3530-4797)

*대행사: 혜성장묘개발(054-353-8867)

7. 개장방법: 유언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처리 무원분묘는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8. 구비서류: 연고자인을 입증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서

9. 기타사항: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가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19. 07. 02

공고인: 영천시 북안면 송포길 104-41 권도동의 1인
대행업체: 혜성장묘개발 영천시 천문로 259(금노동)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망 이재호(520523-1*****, 2009년 12월 25일 사망,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75)의 법정상속인 이복지는 위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한정승인 하고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년21155호로 특별한정승인사건을 신청하여 2019년 6월 21일자로 특별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망 이재호에 대하여 채권 또는 유증을 받으신분은 본공고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채권 및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이사실을 민법제 1032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한정상속인: 이복자

채권신고장소: 파주시 새뚝로 35,

306동 1801호(금촌동, 새뚝마을)

안내 광고

광고문의
TEL: (02) 753-1134
FAX: (02) 753-1447
아시아일보 asiailbo.co.kr

생활에 힘이 되는 알찬정보
여기 다 있네~!

- ☑ "전세자금 지원 없나요? 보증자리주택은?"
- ☑ "내게 딱 맞는 일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 ☑ "아이 맡기기 너무 힘들어요...무슨 방법 없나요?"
- ☑ "둘째 대학등록금도 만만치 않는데...어찌지?"
- ☑ "연말정산 혜택 빠짐없이 챙기려면?"

www.briefing.go.kr

공방코리아

성동구, 몽골 바이양겔구에 '성동숲' 조성

3년간 1000그루 수목 식재... 사막화 방지 기여

성동구는 지난해 자매도시로 인연을 맺은 몽골 바이양겔구에 향후 3년간 1,000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동숲'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우리나라 황사와 미세먼지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몽골 사막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의식에서 올해 초부터 양 도시 간 협의를 결실을 맺었다.

바이양겔구는 '성동숲'이 조성될

Agro park 내 1만5,000㎡의 부지를 제공하고, 구는 해당 부지에 2019년 8월부터 3년에 걸쳐 1,500그루의 수목을 식재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바이양겔구는 식재한 수목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다. 몽골 내 수목의 고사율은 70~80%에 달하나 바이

양겔구는 '성동숲' 내 수목 고사율을 20%까지 낮추기 위해 수목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성동구 실무단은 지난 5월 현지 부지를 직접 사전답사하며 성동숲 조성 위한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8월에는 정원오 구청장을

포함한 '성동숲 조성 대표단'을 구성해 바이양겔구를 방문, 현판식 및 기념식수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가족 단위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정기적인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성동

숲 조성 사업은 우리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는 황사와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성동구민 봉사자들의 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며 "자매도시와 협심해 국제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국제교류 사업의 좋은 사례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상관 기자

금천구, 청소년 과학캠프 개최

창의적 아이디어 구체화하고 3D모델링으로 완성

금천구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오는 29~30일 1박 2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2019년 청소년 과학 캠프 '하트를 쿨한 발명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는 '금천구 무한상상스페이스' 주관으로, 청소년들이 다채로운 과학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생각하고 소통하며, 사고력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미래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생활 속 쿨한 아이디어'를 주제로 팀별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3D모델링으로 완성하는 '3D모델링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특히, '3D모델링 프로젝트'는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금형디자인과 학생들(45명)이 재능기부로, 1:1 3D모델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캠프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생 멘토단(17명)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과학 실험체험 활동으로

△아이스브레이킹 △스토리텔링 캐릭터 만들기 △과학퀴즈 골든벨 △얼음의 질량과 부피를 알아보는 '하트 쿨하게 만들기' △'Fun Fun' 레크레이션 등을 실시한다.

모집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으로 팀별(2~5명)로 신청 가능하며, 최대인원 45명까지 모집한다.

최종 캠프 참여자(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아이디어 발표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2차 아이디어 발표회는 20일 오전 10시 '무한상상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이메일(gcideaall@gmail.com) 또는 무한상상스페이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한편, 27일 오후 1시 G밸리기업시민청에서 참가자 사전교육으로 △'메이커 세계로 여서와' 글로벌 메이커 유튜버 다은쌤의 강연 △1:1 3D 모델링 교육을 진행한다. 사전교육 참석자에 한해 본 캠프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김승수 기자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안전용품' 지원

교통안전·건강관리 등 안전교육도 실시

마포구는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쿨조끼, 쿨토시 등의 폭염대비 안전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8일까지 물품 지급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구가 지난 6월초 실태 조사를 실시해 파악한 관내 재활용

품 수집인 164명이다.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의 99%에 해당하는 162명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나타났다.

구는 작년 서울시 폭염일수가 역대 최고치(35일)를 기록한데다 온열질환자의 경우 60세 이상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 등을 감안해 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용

품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지원은 구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생계를 위해 2016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래로 매년 계속되고 있다.

2017년에는 사계절 작업화를, 지난해에는 안전조끼와 안전봉, 장갑, 방한화 등을 지원했다. 구는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매년 재활용품 수집인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와 안전용품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길가에서 이뤄지는 수거작업의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이와 관련한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마포경찰서와 함께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올해도 재활용품 수집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및 건강관리 교육

김승수 기자

동대문구 '신바람 실버 동대문' 제34호 발행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정보 수록

동대문구가 1일, 어르신 전문 소식지 '신바람 실버 동대문' 제34호를 발행했다.

'신바람 실버 동대문'은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어르신 맞춤형 소식지로, 지난 2011년 10월형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발행돼 많은 주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매 분기마다 발행되며, △건강과

일자리 △여행 △경로당 △구정 △평생교육 △참여마당 등 어르신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가 담겼다.

특히, 이번 호에는 치매와 관련된

교육, 건강검진 등의 안내와 함께 점

점 더 무더워지는 날씨를 대비한 무더위쉼터 관련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어르신들의 폭염 속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는다.

이외에도 △특거 어르신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 △추억의 영화상영 정보 등 다채로운 정보가 가득하다.

'신바람 실버 동대문'의 취재와 기사 작성에는 70~80대 어르신 9명으로 구성된 실버기자단이 직접 참여한다.

이상관 기자

서대문구 청년키움식당, 성공창업 마중물 역할 토크

7~8월 '푸드오브락' 팀 수제팬케이크·수제버거 판매

서대문구는 이화여대 및 (주)후앤파트너스와 함께 올해 3월14일 운영을 시작한 신촌 박스퀘어 내 '청년키움식당'이 고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식당에서는 올 초 서류와 조리심사를 통과해 선정된 7개 팀이 올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과

새로운 먹거리를 즐기려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명소가 부상하고 있다.

3월에는 '참 맛있다' 팀이 치즈 닭갈비를, 4월에는 '햇츠비건' 팀이 채식 도시락을, 5~6월에는 '담담' 팀이

막걸리를 이용한 전통주카스테일과 인절미와팥을 판매했다.

이어 7~8월 두 달 동안은 '푸드오브락' 팀이 수제팬케이크와 수제버거를 선보인다. 이 팀은 실전에 앞서

외식창업 컨설팅업체인 (주)후앤파트너스로부터 메뉴 개발과 조리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구는 올 들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사업

시행자' 공모에서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청년키움식당을 오픈했다.

식당 운영 청년들에게는 조리법, 메뉴개발, 매장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비롯해 사업장 임대료, 주방기구 등 외식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상관 기자

양천구, 수명산 산책로에 조명등 18개 설치 완료... 구민 불편 해소

양천구는 구민들이 운동 및 산책로로 자주 이용하는 수명산 등산로에 조명등을 설치 완료했다.

수명산 등산로 일대는 군부대와 가까이 있어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조명등 설치가 어려웠던 지역이

다. 이로 인해 어두워지면 주민들이 산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늦은 밤에는 안전사고가 우려되기도 했다. 이에 구는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군부대 및 인근 주민, 경계를 접하고 있는 강서구와의 협의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군부대 후문에서 수명산 정상까지 약 330m 구간에 15~20m 간격으로 총 18개의 조명등을 최근 설치 완료했다. 특히, 조명 빛이 하

늘로 올라가는 비율이 낮은 컷오프형식의 보안등을 설치해 산책로는 밝게 비추면서도 조명등의 불빛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다.

김승수 기자

관악구, 아동권리 모니터단 모집

관악구가 오는 8일까지 '관악구 아동권리 모니터단'을 모집한다.

구에 따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아동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50명 이내의 '아동권리 모니터단'을 구성할 계획이라 밝혔다.모집대상은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0~18세의 아동·청소년과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원으로 위촉되면 관악구의 아동·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대해 주

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아동의 권익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 등 아동·청소년의 시각에서 관악구 정책을 모니터링 및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위촉장과 함께 활동에 따른 자원봉사 실적이 인정되며, 우수 활동 단원에게는 구청장 표창도 수여 할 계획이다.신청은 구 홈페이지(www.gwanak.go.kr) 팝업창 또는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hjlee4@gni.kr) 전송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승수 기자

도봉구, 마을극장 회고무신 '비움과 여백' 전시

도봉구는 마을극장 회고무신 모두의 갤러리에서 오는 5일부터 8월 초까지 '비움과 여백'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비움과 여백' 전시는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문인화가 김순자 작가와, 한국화가 윤정숙 작

가 2인 전이다. 15개의 작품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는 무더운 여름 지역주민들에게 바쁜 일상 중 잠시 자연의 모습을 담은 수묵화를 통해 여유를 느끼고, 지

친 마음의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전시 오프닝이 진행되는 5일 오후 6시40분에는 지역에서 오키나와 연 주자로 활동하는 김승재 씨의 하우스 콘서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모두의 갤러리는 전시기간동안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무료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이상관 기자

**요즘 같은 땀,
우체국예금이죠!**

쓸 때마다 즐거운 우체국 체크카드,
행복한 꿈을 주는 우체국예금까지
이제, 우체국에서 만나세요~

언제나 내 곁에 ~ **우체국 예금**

마포구 “잘못된 관광정보를 찾아라!”

관광안내 정보 속 오·탈자, 비표준어, 외국어표기·방향표시 오류 등 찾기 이벤트 실시

마포구는 7월부터 마포구 주요 관광지에 설치된 관광안내도 및 관광 명소 유도 표지판 등의 잘못 표기된 정보를 찾아 신고할 경우 온라인 상품권을 지급하는 ‘잘못된 관광정보 찾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간 500여 만 명이 찾는 서울의 대표 관광지인 마포구는 잘못된 관광정보로 인한 국내의 관광객들의

불편을 줄이고 여행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벤트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마포구 내에 있는 관광안내도와 관광명소 유도 표지판, 게스트하우스 안내도, 서울 속 순례길 관광안내표지판 등에 있는 오·탈자 및 비표준어, 잘못된 외국어표기, 방향표기 오류 등이다.

참여 방법은 잘못 표기된 관광안내 정보 사진과 함께 올바른 표기를 기재해 마포관광홈페이지(culture.mapo.go.kr) 또는 마포구 관광과 인스타그램(mapo_tourism)에 등록하면 된다.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구 관광과를 팔로우 한 뒤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등록(해시태그 필수)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구는 매일 말일까지 신고를 받고 내용 심사 후 익월 첫째 주마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준 정보자들에게 2만원의 온라인 상품권을 모바일로 지급한다. 이벤트 관련 세부 내용은 구 홈페이지(www.mapo.go.kr)와 마포관광블로그(mapotourism.blog.me/) 또는 구

관광과 인스타그램(mapo_tourism)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관광 생태계의 기본인 올바른 관광정보 제공을 통해 관광객들의 불편요한 불편을 없애겠다”며 “잘못된 관광정보 찾기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수 기자**

양천구, 취업박람회 개최

사무원·조리사·요양보호사 등 109명 채용

양천구는 오는 4일 오후 2시 해누리타운 2층 아트홀에서 2019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날 취업박람회는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매칭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취업박람회로 양천구와 영등포구, 강서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사무원, 조리사, 요양보호사, 베이비시터, 산후관리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0개의 구인업체가 참여해 109명을 채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청년, 중·장년층 등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현장에서 구인업체 인사담당자와 면접 및 채용이 진행된다. 그 외에 △구직자를 위한 전문직업상담사의 1:1 맞춤형 취업상담 △일자리 관련 정보 제공부스 △성인의 자기

이해 및 직업탐색을 위한 무료 직업심리검사 등도 마련된다. 구 관계자는 “구직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일자리 선택의 기회 및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합동으로 개최된 이번 취업박람회에 관심이 많은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박람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미취업자들에게 취업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사후관리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매주 목요일 해누리타운 4층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직장·분야별로 1~3곳의 구인업체와 구직자간의 1:1 현장면접을 실시하고 일자리를 제공해 구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용수 기자**

구로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기념식·축하공연·유공자 표창 수여·특강 등 다채

구로구가 양성평등주간(매년 7월 1~7일)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구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심 제고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아동 성폭력·유괴 예방 인형극 ‘호랑이를 물리친 오누이’가 2일과 3일 구로구민회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사전 접수를 통해 모집한 관내 5~7세 아동 1,300여명

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펼쳐진다. 극단 ‘하늘꿈’이 어린이들에게 성폭력, 유괴 등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인형극을 통해 쉽고 재밌게 알려준다. 4일 구청 강당에서는 양성평등주

간 기념식이 열린다. 오후 1시 브라밴드 공연을 시작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축하공연, 유공자 표창 수여식과 마을연연구소 박진규 소장의 특강 ‘양성평등 시대의 마인드 디자인’, 레크리에이션 등이 이어진다.

같은 날 구청 곳곳에 각종 부대행사로 준비된다. 찾아가는 취업상담 ‘일자리 부르릉’,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 예방부스, 여성 유방암 자가검진 교실, 가족과 성 건강 상담, 자기혈관 숫자알기 검진 등이 진행된다. 아빠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

는 행사도 마련된다. 6일 구청 강당에서 아빠와 유아기 자녀로 구성된 40팀을 대상으로 미술공연과 풍선·비눗방울쇼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매직버블데이’ 행사가 열린다. 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용수 기자**

종로구 “나눔으로 주차 문제 해결해요” 한국마사회 종로지사와 주차장 공유 협약 맺어

종로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한국마사회 종로지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1일부터 한국마사회 종로지사 부설주차장 일부를 주민에게 개방한다. 구는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 문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마사회 종로지사와 나눔주차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협약으로 한국마사회 종로지사의 부설주차장 총 30면 중 22면을 확보했다. 주차장 22면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일 개방되고, 주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이용 시 주차요금이 발생하는데 한국마사회 종로지사의 사회공헌활동으로 무료로 개방할 수 있게 됐다. 주차 신청과 이용 관련 문의는 구 주차관리과(02-2148-3336)로 하면 된다. 구는 고질적인 도심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발생하는 주차장 건설 대신 여유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나눔주차 제도를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지만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대학로의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실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주차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차장 168면을 방

문객과 주민에게 개방했다. 현재 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68면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 290면 △동대문 종합시장 30면 △국립현대미술관 100면 △광명교회 17면 등 총 10개소, 690여 면의 주차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이 중 220면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이용되어 주민은 월 3만원에 6만원의 주차요금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부설주차장 5면 이상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건물주는 주차장 시설개선비(최대 2,500만원), 연장개방시설 유지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등 나눔주차는 지역 주민과 건물주 모두에게 혜택이 있다. 김병중 구청장은 “지역 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공유에 함께해 준 한국마사회 종로지사에 감사드린다”며 “주차공간의 개념을 개인의 소유에서 모두의 공유로 전환하는 나눔주차 활성화에 공헌을 극대화하고 예산도 절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일부 주차장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함으로써 건물주의 운영상 부담을 해소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해 상생을 실현하는 좋은 예로 꼽히고 있다. **이상관 기자**

관악구, 디자인조명 설치 완료

희망과 위로 전달

관악구가 밝고 안전한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디자인조명’ 사업 설치를 완료하고 주민과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디자인 조명’이란 조명에 필름을 붙여 문구나 그림을 바다에 비추는 조명으로써 야간 통행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구는 올해 총 13개소에 ‘디자인 조명’ 설치 사업을 추진했으며, 야간에 주민과 학생들의 통행이 잦은 삼성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 및

주책가 밀집지역 7개소와 청룡동 청룡5길 주변 주택가 밀집지역 6개소에 설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행복은 마음속에서 시작하고 끝을 맺는다’, ‘바쁘게 지나간 날들 가운데 우리의 꿈을 그려’, ‘희망과 감동이 있는 삼성중학교’ 등의 다양한 디자인 문구들이 동네를 밝고

안전하도록 비추게 된다. 특히 구에 따르면, 이번 디자인 조명 사업은 설치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디자인 문구와 그림을 선정했으며, 우리 동네 안전을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함께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혀왔다. 인근 주택가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퇴근할 때 우연히 도로에 새겨진

희망을 주는 글귀를 보고, 이번 그림이 삭막한 야간 통행길에 재미와 희망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소감과 함께 감사를 전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디자인조명으로 주변 지역의 안전은 물론, 다양한 문구와 디자인을 통해 지친 하루를 위로받고 다가올 내일의 희망을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더불어 관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수 기자**

강북구, 어린이 예방접종 인형극 공연

강북구, 어린이 예방접종 인형극 공연

강북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어린이 인형극 ‘키키와 함께하는 예방접종 대모험’을 개최한다. 공연은 관내 12곳의 어린이집 4~7세 아동 400여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인형극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다. 영유아기를 지난 어린이들은 주사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병원을 들어 서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다. 공연은 이런 점들을 극복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인형극은 주인공 키키가 약당을 쫓아내고 마을에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약 1시간 진행된다. 인형극 공연과 함께 레이저쇼, 예방접종 함께 부르기 등이 진행되고 공연이 끝난 후에는 주인공 키키, 예방이와 기념촬영의 시간도 갖게 된다. **이상관 기자**

금천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금천청년사서’ 운영

지원할 예정이다. 급여는 금천구 생활임금(시급 9,940원)으로 지급하며, 사회보험 및 복리후생은 금천구 기간제근로자 공통 지침에 따라 차별 없이 지원한다. 사서는 문헌정보학과를 나오고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직업이다. 도서관에서는 사서 채용 시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사회 초년생 청년이 사서가 되기란 쉽지 않다. 많은 청년들이 사서를 지망하여

문헌정보학과에 가지만, 졸업하면서 다른 일을 찾는 경우가 많다. 구는 이러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금천청년사서’를 만들었다. 꿈이 있어도 경력이 없기에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해 현장훈련형 일자리(OJT, On the Job Training)를 고안했다.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되지만 구는 OJT교육을 통해 직무 효율성을 높였다. 금천청년사서로 참여하는 청년 김

성엽 씨(20대)는 “우리나라는 도서관이 독서실로 바뀐 것 같아 정말 안타깝네요”라며, “우리 구 도서관을 주민 중심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서관’으로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기대와 포부를 밝혔다. 유성훈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현장의 청년 특성에 맞춰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금천청년사서 사업이 사서를 지망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수 기자**

금천구가 7월부터 구립도서관 3개관을 대상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금천청년사서’를 운영한다. ‘금천청년사서’ 4명은 구립도서관에 배치돼 △도서 대출·반납 △장서관리 △희망수서관리 △도서 큐레이팅 등을 배우며 정식 사서 역량을 쌓게 된다. 매주 금요일~월요일(주4일) 근무로, 평일에는 학업을 병행하거나 자격증 및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청년사서가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사서직무교육도

자연 가까이 사랑 가까이

자녀와 인간을 위한 녹색환경창조기관

지구가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호흡을 되찾을 수 있도록 'Green Tomorrow'를 열겠습니다. 우리 삶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가는 시간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합니다.

대한민국 녹색성장의 중심 KECO 한국환경공단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www.keco.or.kr

“공공·공정·공감의 가치를 중심으로 조금 더 속도내겠다”

박승원 광명시장, 취임 1주년 맞아 안전보안관과 함께 뉴타운 공사장·하안배수펌프장 살피며 각오 다져

민선7기 박승원 광명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박 시장은 1일 안전보안관과 함께 재건축공사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살피며 하루를 시작했다. 지난해 7월 1일에도 태풍 북상 소식이 취임식을 취소하고 뉴타운 공사장과 하안배수펌프장 등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박승원 시장은 이날 직원 월례회의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1년 동안의 소감과 성과,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월례회의에는 일일명예부시장 5

명이 함께했으며, 기자간담회에는 안전보안관 6명이 함께했다. 박 시장은 “지난 1년, 그 첫 마음과 책임감을 한 시도 잊은 적이 없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결정하는 책임이 무거웠지만, 1년을 1시간처럼, 1분처럼 바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 동료 공직자들의 신뢰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의 시정방향을 중심

으로 5대 목표, 10대 전략, 116개 과제를 추진해 민선7기 4년 시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해왔다. 116개 공약 중에서 28건은 완료했으며, 88건에 대해서는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천해 가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1년간 광명시아동 전문보호기관 개관, 여성친화도시 두 번째 지정, 무상교육 조기 실시, 학교체육관 개방,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평생학습센터 개관, 일자리위원회, 청년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

성, 한국폴리텍대학 제2융합기술교육원 유치,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확대, 다양한 시민토론회를 통한 시민 참여행정 실천 등 많은 성과를 이뤘다. 시는 앞으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구름산 지구 개발, 뉴타운사업, 재건축, 광명동굴 주변 개발사업, 시민운동장 지하 공용주차장 조성, GM타워, 서울시립근로청소년 복지관 부지 개발 등 ‘미래를 바꾸는 도시개발과 삶을 바꾸는 생활 정책 실현’을 목표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계획이다. 또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남북 교류 사업으로 광명시가 앞장서 통일시대를 준비할 계획이다. 오는 8월 31일 개최하는 시민 500인 원탁토론회 등 시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광명시를 이끌어 갈 힘인 집단지성을 키워갈 계획이다. 박 시장은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공공성을 담고, 공정하게 추진되며, 시민들과 공감을 형성할 수 있길 바란다. 공공·

공정·공감의 가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고 흐름이다”며 “올바른 방향을 세웠던 1년을 바탕으로 공공·공정·공감의 가치를 중심으로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 소의 없이, 차별 없이 함께 잘 사는 광명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꼼꼼히 이행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광명시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여 공약사업 시를 이끌어 갈 힘인 집단지성을 키워갈 계획이다. 박 시장은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공공성을 담고, 공정하게 추진되며, 시민들과 공감을 형성할 수 있길 바란다. 공공·

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실시한 ‘2019 광명시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 73.4%로 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박승원 광명시장의 시정 전반 정책에 대해 매우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명시는 오는 2일 오후 7시 시 민회관에서 ‘광명, 안부를 묻다!’를 주제로 “광명시 민선7기 1주년 기념 토론포럼”을 개최한다. 시는 이번 토론포럼을 통해 지난 1년간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의 시정방향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며 시정을 알차게 꾸려나갈 계획이다. **이덕우 기자**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 현장 확인·관계기관 합동 회의

이재준 고양시장,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 및 차별화 전략 마련에 행정력 총력 주문

고양시는 지난 6월 28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 현장을 확인하고,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고양시 산하기관 합동으로 현안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번 현안회의는 경기도와 경기도 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사업시행자와 고양시 및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시정연구원 등 산하기관 등이 그간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재준 시장은 “성장 한계에 부딪힌 고양시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특히 일산테크노밸리 중심으로 방송영상밸리, 킨

텍스 제3전시장, 청년스마트타운, CJ 라이브시티를 2023년까지 완공하고 IT·ME·DIA·MICE특구’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와 관계부서로부터 테크노밸리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신속한 개발계획 수립으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농림부, 환경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 협의를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창업지원 생태계 조성 및 기업성장 기반마련을 위한 ‘창업 및 기업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고양시와 경기도가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건립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신성장 산업의 유치전략과 고

양시민의 지원전략의 실행을 위해 고양시정연구원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협력과 공조를 지시했다. 아울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시행자와 관계부서로부터 테크노밸리 일부 구역에 대한 군부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만큼 관련군사시설 등에 대한 이전 사업도 우선 실시해 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적 완수와 함께 국방군사 작전에도 지장이 없도록 군사시설 이전 사업 등에 대해 우선 추진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도·시의 회 신규투자사업 통과를 거쳐 2019년 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

고자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2020년 하반기 토지보상을 거쳐 실시계획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에 대지조성 공사를 착공해 2023년부터는 기업 입주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한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부지는 ▲저렴한 기업용지 뿐만 아니라 ▲인근에 방송영상밸리(방송영상단지), 청년스마트타운(청년주거), 한류월드(테마형 테마파크), 킨텍스(MICE산업) 등 인접 지역 도시기반 시설과의 인프라 공유는 물론 산업간 선순환체계 구축에 용이하고 ▲제1·2자유로, GTX(2023년 개통), 신교통신단 등 광역 교통과의 연계성과 편리성을 모두 갖춘 단지로 평가되고 있다. **이만희 기자**

폭염 속 홀몸노인 보호 대책 9월 30일까지 시행

성남, 찜질방 이용 쿠폰·경로당 114곳 냉방비 지원 등

성남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속 홀몸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냉방시설 등이 부족해 재난 취약계층으로 선정된 2335명 홀몸노인에게 찜질방 하루 이용 쿠폰을 5장씩(이용 기간 7월 1일~8월 31일) 지원했다. 폭염, 열대야 현상 때 성남시와 계약한 찜질방 10곳을 무더위 쉼터로 이용할 수 있다. 지역별로 수

정지역 3곳, 중원지역 4곳, 분당지역 3곳에 있다. 노인이 많이 모이는 성남지역 114곳의 주택지 경로당은 무더위 쉼터로 지정·운영한다. 이들 경로당엔 7~9월 여름철 냉방비(월 1만원)를 지원한다.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에어컨을 틀어 더위를 식힐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이와 함께 시는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협력 체제를 이휘

3969명 홀몸노인(센터 등록자)의 여름철 건강 상태를 살피기로 했다. 생활관리사 164명이 대상 노인에 매일 전화를 하고, 통화가 되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는다. 응급 상황 땀 119 연계, 보호자 연락, 병원 이송 등 신속 대응한다. 성남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95만916명(3월 말 기준)의 12.8%인 12만1527명이다. 이 가운데 혼자 사는 노인은 2만9502명이다. **이오연 기자**

용인, 라이온코리아서 출산기념 손세정제 세트 지원

용인시는 생활용품 전문 기업인 라이온코리아가 관내 출생신고 가정 1211가구에 출산기념 선물로 손세정제 세트를 7월1일부터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시와 라이온코리아가 지난 12월 관내 출산가정에 축하용품을 제공하는 ‘출산장려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은 데 따

른 것이다. 대상은 7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관내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출산가정 약 7천세대다. 해당 읍·면·동에서 신고를 할 때 손세정제를 나눠준다. 이 세트엔 250ml짜리 세정제 1개와 200ml짜리 리필제품 2개가 들어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기업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보여

줘 감사하며 출산가정에서 손세정제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영아를 돌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라이온코리아는 저출생·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전국 지자체들과 출산가정 출산 축하용품 무상지원을 하고 있으며 시는 이 가운데 34번째로 협약을 맺었다. **황성철 기자**

박용국 포천시시장, 민선7기 취임1주년 맞아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 실천

박용국 포천시장은 지난 1일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아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거리를 나섰다. 이날 오전 6시부터 가로환경미화원과 함께 소흘읍 도로변을 청소하며 현장에서의 고충을 직접 체감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모현센터 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하여 주요 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고 요양원 종사

자와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박 시장은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는만큼 시에서도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 마련과 시설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천시민 혁신대토론회를 개최해 2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포천시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민선7기 주요 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후, 시민들이 궁금해하던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면 시장이 직접 답변하며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었다. 또한 경제·교육·복지 등 각종 분야에 대하여 시민들이 직접 정책 제안을 하는 등 포천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박용국 시장은 “전철7호선과 양수발전소 유치 등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이 되어 준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신도시 조성과 역세권 개발사업, 공공 유치사업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처음 포천시장이 되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시는 7월중 민선7기 시민들과 약속(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인과의 간담회도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유홍열 기자**

최용덕 동두천시시장, 민선 제7기 1주년 기념행사 대신 현장중심 소통행정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지난 1일 민선 제7기 1주년을 맞이하여, 대규모 기념행사 대신 현장담 참여를 시작으로 현장을 살피는 소통 중심의 행보로 취임 1주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이날 개최된 7월 월례조회에서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담은 기념사를 통해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

을 위해, 민생과 현장에서 답을 찾아 줄거를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겠다”며,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을 위해 공직자들이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어린이집 2곳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고, 아이들에게 동화책 읽어주는 시간을 가진 후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하여, 민선7기 주요공약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해 지난 1년간

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후에는 국민체육센터 개관식 참석과 재난상황 대비를 위한 빗물펌프장 방문, 박찬호야구장 및 동막골댐 현장을 방문, 폭우 등 재난대비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는 등 민생에 직결되는 현장행정을 실천하는 것으로 하루 일정을 마감했다. 최용덕 시장은 재난대비 현장방문

에서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폭우 등의 재난상황이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재난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는 만큼, 어떠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경각심을 가지고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과 배수펌프장 가동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종진 기자**

연천군 노인복지관, 신규기획사업 공모 선정

1억8천만원 기금 전달식

연천군노인복지관(관장 김학석)은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김경희 본부장)가 주관한 ‘2019년 신규기획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지난 6월 26일 기금(1억 8천만원)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김광철 연천군수, 김경희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북부사업 본부장, 김학석 연천군노인복지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노인 돌봄 가족을 위한 사회적 돌봄 사업을 통해 연천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개발, 노력해주는 연천군 노인복지관에 감사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어르신이 보다 나은 돌봄을 지원받고, 그에 따른 가족돌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군차원에서라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지속적인 지지

의지를 약속했다. 이번 신규기획사업 공모는 빈곤과 질병, 소외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3가지 기획 주제로 진행돼 면접심사 및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연천군노인복지관은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올해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3년간 사업비 총 1억 8천만원의 지원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연천군노인복지관이 기획한 이 사업은 제도권 밖의 차매, 중풍 노인부부의 돌봄 부담 완화 및 건강한 가족 관계 기능강화를 위하여 가족내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돌봄 제공자에게 돌봄 부담에 따른 정신건강 및 갈등심화 문제해 T(Turning Point-전환점)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기능 강화 전환프로그램, L(Leaving-휴식)가족의 휴식 집단 프로그램, C(Case manager-사례관리)지체 돌봄 서비스 구축 사례관리 모델제작 등의



김광철 연천군수는 ‘신규기획사업 공모’ 최종 선정되어 기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주제로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와 휴식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 1차 년도에는 배우자를 돌보는 수발자 또한 노인으로서 돌봄 가족이 겪는 직접적인 문제해결과 정서적 지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특색돌봄(돌봄가족 문화, 농번기, 긴급상황발생 시 인력 파견 등)을 진행하고, 2차 년도에는 가족지원단을 연천군 자체적 컨소시엄 형태로 조직화를 통해 사업의 확대, 3차 년도에는 사업의 경험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돌봄 가족을 위한 공동체 구축 및 모델화에 주력한다. **유홍열 기자**

FC안양, 강원FC서 DF 최우재 임대 영입

프로축구 K리그 FC안양(구단주 최태호 안양시장)이 강원FC에서 활약한 수비수 최우재를 임대 영입했다. 최우재 선수는 “안양 출신이기 때문에 안양의 프로축구 구단에서 뛰게 되어 매우 꿈만 같다. 어린 시절부터 안양종합운동장을 자주 찾았는데, 그라운드 안에서 안양 팬들의 함성소리를 듣고 뛰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다”며 “이 시간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라 생각되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빨리 경기장에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다. 안양시민들과 축구팬들께 실망시키지 않도록 내 역량을 충실히 해낼거고 모든 것을 쏟아 내겠다”고 안양에 합류한 소감을 밝혔다.



한대희 군포시장이 수방장비 등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 수방장비 관리상태 점검

“재해 예방·피해 최소화 노력”

한대희 군포시장이 수방 장비 보유 현황 및 관리 상태를 직접 점검하는 등 장마에 의한 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특히 점검 현장에서 한 시장은 여성 공무원이 점점 증가하는 실정을 고려해 최근 추가 구매 및 배치한 0.5마력 규격의 수중 모터 펌프를 확충했다며 “이 시간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라 생각되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빨리 경기장에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다. 안양시민들과 축구팬들께 실망시키지 않도록 내 역량을 충실히 해낼거고 모든 것을 쏟아 내겠다”고 안양에 합류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경기에서 수원FC를 꺾고 리그 2연승을 기록하며 리그 5위에 올라있는 FC안양은 오는 8일(월) 오후 7시 30분, 대전시지즈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다. **박정남 기자**

한편 한 시장은 이번에 저지대 주택 침수 피해 예방 및 구호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시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호우 시 침수 우려 가구를 파악, 28가구의 피해가 예상돼 지난 5월부터 침수방지 시설(여지반)을 설치 중이다. 또 침수가 발생할 경우 현황 조사 및 심사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최대한 빨리 시민 입장에서 완료·처리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한대희 시장은 “군포는 지형 특성상 다른 도시와 비교해 호우 피해가 적은 곳이지만, 방심하지 않고 재해 및 인제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할 것”이라며 “수시로 수방 대책 현황을 직접 점검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시의 재해 예방 대책 및 피해 복구 등과 관련된 정보는 재난안전과에 문의(031-390-0446)하면 알 수 있다. **박정남 기자**

“미래 시흥 30년의 주춧돌 놓기위해 최선”

임병택 시흥시장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도시·서해안 관광중심도시 등 추진”

임병택 시흥시장이 1일 오전 11시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민선7기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32만 대도시의 문을 연 시흥시의 발전은 모두 시민 덕분”이라며 “미래 시흥 30년의 주춧돌을 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이날 “시흥 미래 30년, 더 새로운 시흥으로 갑니다”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년간은 ‘시흥은 시민이 주인’이라는 대명제 아래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복지 터전을 마련하며 시흥의 행복한 변화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상수도 탁수 문제나 국책사업에 따른 주민 우려 등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며 “수돗물 문제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재발 방지 대책을 구축하고 공공주택지구개발에 따른 문제는 중앙정부에 해결을 촉구하며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해 시흥시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임 시장은 “이제 시흥은 어제의 결실과 성장통을 자양분 삼아 ‘더 새로운 시흥’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래 시흥의 비전에 대해서는 △2021년 국제안전도시 추진 등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도시’ △전국 최초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을 세워

도시 전체가 학습으로 성장하는 미래 교육 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2035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한 균형 발전 도시 △V-City·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시흥스마트허브·거북섬으로 이어지는 시흥밸리 구축 △해안레저클러스터 조성 및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통한 서해안 관광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 쓰겠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이날 “시민의 희망이 곧 시흥의 정책”이라며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것과 함께 평범한 시민의 행복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도시는 더 똑똑하게, 시민은 더 안전하게, 교육은 더 새롭게, 시민은 더 흥이 나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도영 기자**



조광환 남양주시장이 남양주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약용 케어! 보육을 만나다’ 남양주시 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 건의 발아

남양주시(시장 조광환)는 지난달 28일 금곡동 소재 책어행어린이도서관에서 남양주시 어린이집연합회와 ‘정약용 케어! 보육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남양주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및 민간, 가정, 국공립, 직장 분과위원회 임원진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는 보육 여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안심보육을 위해 어린

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 사업을 남양주시가 추진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으며, 출산을 저하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우므로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보육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 우선 설치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에 조광환 시장은 “사명감과 소명의식으로 소통자이던 영유아들을 보살피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남양주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정부정책에 발맞추고 학부모 수요를 충족시켜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공립 및 민간 등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현장에서 고생하는 보육교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육현안에 대한 공감과 문제해결을 위해 오늘과 같은 소통의 자리를 자주 가지겠다”고 말했다. **■손복선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민과의 대화의 장 마련 경기북부 한류월드 및 경기학교체육정책 발전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를 오는 2일 고양시와 4일 수원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일 오후 2시에 개최될 ‘한류월드와 연계한 자족도시 고양 발전방안 토론회’는 고양지역 도의원이 대거 참여하여 한류월드 내 빛마루방송지원센터 8층 세미나룸에서 자족도시 고양조성의 한 축인 한류월드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 전체 사회는 최승원 경기도의원(고양8)이 맡아 진행하고, 제1부 토론회 좌장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달수 위원장(고양

10)이 맡고, 고은정 경기도의원(고양9)이 토론자로 나선다. 제2부 좌장은 소영환 경기도의원(고양7)이 나서고, 원용희 경기도의원(고양5)이 토론에 참여한다.

여기에 고양시의회의 의원으로 김미수 시의원(고양 차)과 김서현 시의원(고양 아)이 토론자로 참가하고 경기도와 고양시 국장급 간부들이 토론회에 참여한다. 1부에서는 수년간 펼쳐된 한류월드가 최근 ‘C라이프시티’의 투자로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한류월드가 고양 지역경제에 어떤 기여를 하고 그 발전을 위해 경기도와 고양시가 어떤 행정적 지원

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토론회 2부에서는 고양시 현안인 한류월드 단지 내 소하천인 ‘한류천’ 개선방안에 환경생태적 논의가 이루어진다. 4일 오후3시에는 ‘경기학교체육정책을 위한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본 토론회는 수원 경기과학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인데, 학교체육 지도자, 학생운동선수, 학부모 등 800여명에 달하는 도민들이 모여 열린 경기학교체육정책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수원4)이 발제 및 좌장으로 나서

며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경매가 시작하기 전 정 군수는 “더운 날씨에도 농업현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양평부추농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힘들게 생산한 양평부추가 유통현장에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상인 여러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라며 가락도매시장 상인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전했다. 저녁 9시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끝났으며, 양평부추농가들은 자신이 납품한 상

‘대한민국에 표준이 되는 경기도 학교체육정책 만들기’를 주제로 토론회 발언을 열어 나갈 것이다. 특히 본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패널들은 다채롭다.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부위원장(성남7), 율곡고 야구부 박신태 학부모대표자, 용인고 육상부 김다은 학생 등 학부모, 학생, 체육지도자, 언론인, 교육청 관계자 등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부천1)은 “지역에서 가능한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분야의 민생정책들이 제대로 오를 것”이라며 “9월에는 경기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회를 시군으로 최대한 찾아가 활발히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태 기자**

정동군 양평군수, 양평부추 출하현장 방문

양평군은 지난 28일 가락도매시장 동아청사에서 정동군 양평군수와 함께 양평부추농업노조조합인 회원 175 농가와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부추 출하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평부추는 양평군 친환경 10대 명품 작목으로 육성되어 왔으며 2015년 부추 공동출하장을 운영하면서 고품질 부추 생산과 함께 신속한 유통을 위한 생산기반 또한 마련했다.

양평부추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 공하는 농업미생물과 클로렐라, BM활성수를 이용하여 재배되기 때문에 상품성과 저장성이 뛰어난 뿐만 아니라 맛 또한 좋아 가락시장내 상인들이 사이에서도 가장 선호되는 부추로 알려져 있다.

이번 출하현장에서는 부추농가와 양평 군수가 함께하는 다과회장을 열어 농가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건의사항 등을 경청하

며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경매가 시작하기 전 정 군수는 “더운 날씨에도 농업현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양평부추농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힘들게 생산한 양평부추가 유통현장에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상인 여러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라며 가락도매시장 상인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전했다. 저녁 9시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끝났으며, 양평부추농가들은 자신이 납품한 상

품의 경매 과정을 직접 참관하며, ‘어렵게 생산한 부추가 좋은 경매 값을 받기 위해 어떻게 상품을 준비하고 유통해야 하는지 등 알찬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일선 관계자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들이 재배 기술적으로나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의 기자**

양주, 청년마을인턴 본격 활동... ‘ECO 양주 IN 라이프’ 앞장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청년이 함께하는 지역 현안문제 해결 프로젝트 ‘양주 청년마을인턴’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밝혔다.

양주 청년마을인턴은 2019 감동365 지역혁신사업과 연계해 청년들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지역 문제인식 공유 등 청년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7일, 청년마을인턴들이 남면 상수초등학교(교장

왕동순)을 방문해 1~3학년 학생 대상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환경 인식 개선활동을 추진했다. 이는 양주시에서 본격 추진 중인 2019 감동365 전 시민 1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 ‘ECO 양주 IN 라이프’의 확산·지원을 위해 마련했으며, 청년인턴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변화하는 환경보호활동’을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아이들이 쉽게 접하는 플라스틱 1회

용품 빨대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플라스틱 1회용품 빨대를 대체 할 수 있는 쌀 빨대, 종이빨대의 체험교육을 통해 생활 속 변화를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 ‘ECO 양주 IN 라이프’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결실을 이루는 운동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양휘 기자**

수원시 장안구, 제24대 이병규 장안구청장 취임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제24대 이병규 장안구청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병규 장안구청장은 1988년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2012년 사무관으로 승진 후 평등장, 대중교통과장, 시민안전과장을 거쳐 2019년 1월 서기관 승진으로 안전교통국장을 지냈다.

이 구청장은 취임식에 앞서 인계동 소재 현충탑 참배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장안구 공직자 등과 함께 취임식을 가진 후 이어 구 단위 단체장과의 만남을 갖고 장안구 발전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구청장은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모든 정성과 열

정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민의 안전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소통행정과 따뜻한 복지 실현, 주민이 감동하고 만족하는 현장행정 추진, 쾌적한 도시 조성과 신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수원의 선두도시로서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진태 기자**

광고심의필 : 2018-1425-0400

배탈·설사 적신호?

동성제약

배 아플 땐 정로환!

배탈, 설사엔 동성제약 정로환이 좋습니다
동성제약 정로환은 위장의 원활한 활동을 도와주는 생약성분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만든 제제로 설사, 식체, 묽은 변, 토사에 효능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정로환 당의정은 특유의 냄새를 제거한 정제 형태로 복용이 간편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국민 정장제, 동성 정로환
이제 지긋지긋한 배탈, 설사 고민에서 벗어나십시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철부진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동성정로환 동성정로환(120원, 500원) / 동성정로환당의정(48원) 소비자 상담전화 : 080-001-0921

냄새 없는 정로환 당의정

인천시, 수돗물 피해지역 소상공인 긴급금융 지원

총 100억원 규모 서구·강화·영종지역 2%대 초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인천시는 계속되고 있는 수돗물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1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구와 강화, 중구(영종)지역 수돗물 피해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목소리를

즉각 반영해 해당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초저금리의 긴급 용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이번 수돗물 사태로 매년 동기대비 74.6% 증가된 수치다. 또한, 전년보다 50억원 늘어난 300억원 규모로 지원된 구조고도화자금은 현재까지 79개사에 358억원이 지원됐으며, 한도소진으로 5월17일에 접수가 마감됐다.

인천광역시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3분기에도 계속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9,0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550억원 지원 예정이다.

올해는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더 큰 도움을 주고 성장전진을 주도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의 일반기업을 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성장기업, 고용창출기업, 수출기업 등에 지

이번 긴급 용자지원을 위해 시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 8억원의 특별출연금을 교부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농협은행을 취급은행으로 하여 총 1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농협은행에서는 소상공인이 부담

하는 금리를 기존 연 4%에서 2.9% 수준의 초저금리로 대폭 낮추어 수돗물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피해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기존 1%이던 보증료율을 0.7%까지 낮추고, 용자기간을 5년 이내로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한 생수와 필터 등에 대한 구입비를 일반가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살비 보상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긴급 용자지원 외에도 수돗물 사태의 완전한 해결 시까지 현장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촉각을 기울이고 문제 상황에 대해 즉각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긴급 용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지역 소상공인은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서구, 강화-서인천지점, 중구 영종-중부지점)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1577-3790)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배용환 기자

인천시,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계속 지원

신청 접수… 기계·공정자금 200억원 하반기 추가 지원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3분기에도 계속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9,0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550억원 지원 예정이다.

올해는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더 큰 도움을 주고 성장전진을 주도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의 일반기업을 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성장기업, 고용창출기업, 수출기업 등에 지

자금 2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중에서도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은 전년보다 36.9% 증가된 111개사 1,699억원이다. 이들 지원기업은 인천지역에서 3년간 총 1,928명의 신규일 자리를 창출했다. 올해부터는 인건비 부담 가중 등에 따른 자금난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고용규모에 따라 지원 한도를 20억원, 30억원(50명 이상), 50억원(100명 이상)으로 차등 지원하는 등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해 지원실적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기반 조성을 위

해 지원하는 공장 및 기계장비 등의 설비자금 지원실적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79개사에 358억원이 지원되어 자금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제도개선 효과로 판단된다.

시는 2일부터 온라인접수(bizok.incheon.go.kr)를 통해 경영안정자금의 일반자금 600억원과 분야별 목적성 자금 2,000억원 규모 그리고 기계공정자금 200억원을 매주 주차별로 신속하게 지원한다. 자금별 지원혜택, 지원요건 등이 크게 다르므로 기업에서는 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경영 상황에 적합한 자금을 파악하기 위

부평구,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마련

신속 처리 위한 기동반 운영 강화… 불편사항 당일처리

부평구는 고온 다습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대폭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음식물쓰레기 특별 관리에 나선다. 오는 8월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수거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동반 운영을 강화하고, 불편사항을 상시 접수해 당일 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 기간 음식물쓰레기 증가에 따른 수거 지연 방지, 전용용기 관

리강화, 배출지 주변 악취·해충발생 예방 등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세척을 적극 추진해 청결한 주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주택가 주변에 장기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는 전면회수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구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의 70%는 수분으로, 물기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며 “계획적으로 식단을 편성하고 과일껍질 등은 반드시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해 쓰레기 감량에 적극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용환 기자

강화군 ‘아동·청소년 척추 바로 세우기 사업’ 추진

초·중·고생 척추측만증 조기발견 위한 무료 검진 실시

강화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38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척추 바로 세우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나 컴퓨터 사용 시 잘못된 자세, 올바른 지 못한 학습자세로 청소년 신체불균형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

르고 있다. 아동 청소년기의 척추질환은 아이들의 성장까지 방해 할 수 있어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화군보건소에서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척추측만증검사, 보행분석, 인바디검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자기 신체정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운동처방과 바른자세 교육도 시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척추 바로 세우기 사업을 통해 강화군 학생들의 성장기 신체 변형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인천시의회, 웨이하이시위원회 대표단과 우호교류협력 강화 논의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인천시의회에서 중국 웨이하이시위원회 대표단과 지방경제협력 방안 및 양도시간 우호교류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 도시는 2015년 7월 인천-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 강화 합의를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특히 2019년 3월 인천-

웨이하이간 동북아 물류체계 허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양도시간 복합물류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용범 의장은 “웨이하이시와 인천시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 도시로 양도시간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이어 웨이

하이시위원회 대표단 왕루밍 서기는 “상호인력 파견 등 실질적인 상호협력”을 제안하기도 했고, “민간영역까지 교류가 활발히 증진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웨이하이시(威海市)는 중국 산둥반도 제일 끝에 위치하며 인구 300만 명, 면적 5,797㎢의 항구도시이다. ■배용환 기자

부평구의회, 몰카로부터 안전한 공공화장실 조성 기틀 마련 추진

부평구의회 훈순옥 의원(도시환경위원장, 부평구 갑신·2동, 삼산1동)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한 상시점검 및 신고체계 마련,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경찰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훈순옥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공공화장실 등에서 일명 몰카라 불리는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부평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음란물 형태로 유통될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해 구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 발의

남동구,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88곳

노후냉방기 교체 보급

남동구가 폭염에 취약한 계층인 지역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역 내 경로당에 설치된 노후 냉방기 교체작업을 벌였다.

1일 구에 따르면 지난 6월 1달 동안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무더위 쉼터 경로당 노후냉방기 교체사업’을 추진해 노후된 에어컨을 소유하거나 추가 설치가 필요한 무더위 쉼터 경로당 57곳에 총 65대의 냉방기를 보급했다.

구는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도 경로당 31곳에 냉방기 36대를 교체 지원했다. 구는 올해에만 지역 경로당 179곳 중 88곳의 노후냉방기를 교체 보급 완료했다.

이번사업은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

제8대 남동구의회 개원1주년 기념식 개최

제8대 남동구의회가 1일 개원1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을 개최했다. 구의회청사 로비에서 ‘소통으로 묻고 화합으로 답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이강호 남동구청장을 비롯해 역대 의장단과 유관기관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제8대남동구의회 1주년 성과를 담은 동영상 상영과 최재현의장의 기념사, 이강호 청장자 신현필 남동구의회 의장등우회장의 축사에 이어 소통과 화합의 락케이 크 커팅,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최재현 의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개원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8대의회는 전국 최초로 아바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장려금 지원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평구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여성가족과장, 환경보전과장, 공민복지과장 등 관련 부서 공무원과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및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 관계자, 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부일중학교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오는 8월 부평구의회 제230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용환 기자

에 이어 올 여름철에도 폭염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쾌적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는 무더위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이를 위해 2019년 남동구 폭염대응중대대책의 일환으로 구 재난관리기금 1억2,700만원을 확보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폭염과 운영질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폭염 발생 기간에는 경로당 회원 어르신과 지역 어르신 모두 무더위쉼터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폭염뿐만 아니라 미세 먼지부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 경로당에 공기정정기 266대를 보급하고 있다.

■배용환 기자

서구,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민원창구보다 수수료 최대 50% ↓

서구는 관내 참사랑병원과 성민병원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신규설치하고, 노후로 고장이 잦은 서구청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교체·설치해 1일부터 재개통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 설치로 그동안 동행정복지금지원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비즈니스 환경 변화 및 기업 수요에 선제적·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발급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 토지, 지적, 건축, 차량, 보건복지, 지방세와 국제증명 등(가족관계, 등기부등본 등 제외)이며, 민원창구보다 최대 50% 감면된 수수료로 신분증 없이 지문인식만으로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음성안내 및 점자키패드, 화면확대 터치버튼 제공, 휠체어 이용 불편을 겪던 주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용환 기자

미추홀구, 여름철 식중독 예방 특별위생교육 실시

미추홀구는 지난달 28일 구 대회 의실에서 식중독 예방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 증가에 대비, 소규모 사회복지시설(50인미만) 급식관리자와 일반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종사자 44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식재료 구입·보관 방법, 조리·제공 단계별 위생관리 요령,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현장 실천요령 등을 설명,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전문영양사와 조리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소한 부주의나 방심으로 식중독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리장 청결, 조리기구 세척·소독, 음식물 조리·보관 등 위생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2017년 식중독 안전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서 식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영득 기자

동구, 민선7기 취임1주년 맞아 직원 조회 개최

동구는 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허인환 동구청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직원 한 마음조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마음 조회는 민선7기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지난 1년간의 주요 구정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동구’ 조성을 위한 전 직원의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다지는 자리로, 최근 인천시가 수돗물 적수상황 등을 감안해 외부인사 초청 없이 직원들과 소통의 자리로 간소하게 치렀다.

이날, 1주년을 맞아 전 직원들과 함께 민선 7기 주요 성과 및 미래비전을 담은 영상물을 시청하며,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를 돌아봤다.

지난 1년 허인환 동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동구를 다시 인천 교육중심의 1번지로 만들기 위한 교육환경개선 기금 조성, 구민의 안전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노인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전국최초 만65세 이상 노인대상 대상포진 무료접종과 치매안심센터 조성 등 구민을 위한 정책을 씬 없이 추진해왔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1년간 구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취임 후 1년간 변화를 위한 첫걸음과 행복을 위한 밑거름을 다졌다면, 앞으로 3년은 동구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전 직원과 한 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동구를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행복도시로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김영득 기자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3곳 개원

연수구는 지난달 29일 지역주민과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3곳의 개원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개원을 추진해왔던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연수구에 관리를 맡고 있는 15~25년 무상 임대 아파트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행복도시로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김영득 기자

연수구는 지난달 29일 지역주민과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3곳의 개원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개원을 추진해왔던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연수구에 관리를 맡고 있는 15~25년 무상 임대 아파트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행복도시로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김영득 기자

웅진군의회, 제211회 정례회 폐회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등)을 심의했다. 또한 21일 영흥면, 27일 북도면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군민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에 적극 반영했으며, 폐회식에서는 군정 현안

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과 방지현 부의장의 5분 발언이 진행됐다. 이번 군정질문으로 방지현 부의장과 김택선, 백동현 의원은 군정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이끌어냈으며, 방지현 부

의장은 군의회와 집행부의 소통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철수 의원은 “이번 도서방문 시 건의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용환 기자

충남도, 시·군 합동 투자협약 체결

19개사 6232억원 유치... 공장 신설·증설·이전 730명 신규 고용 생산액 변화 4100억원... 당진 석문산단 분양률 40% 돌파 기대

충남도가 민선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수도권을 비롯한 국내 유망 기업 19개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통한 경제-복지 선순환 시스템 구축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승조 지사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구분영 천안시장을 비롯한 6개 시·군 시장·군수 또는 부단체장, 최창우 대상라이프사이언스 대표이사 등 19개 기업 대표와 합동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19개 기업은 천안·아산·당진·청양·예산·태안 등 6개 시·군 53만7411㎡의 부지에 6232억원을 투자,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해 730명을 신규 고용한다.

기업별 투자 내용을 보면, 환자용 식품과 혼합음료, 건강기능성 음료 전문 제조 기업인 대상라이프사이언스는 내년 말까지 천안2일반산단단지 내 1만6148㎡의 부지에 36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한다.

전자 응용제품 전문 제조기업인 아이디시스템은 오는 2021년 6월까지 풍세일반산단 2718㎡의 부지에 51억원을, 친환경 건축 내장재 및 천연 대두 접착제를 생산 중인 내추럴에오는 내년 6월까지 천안시 병천면 송정리 일원 3만1547㎡에 170억원을 투자해 각각 공장을 건립한다.

가전제품용 전력 반도체 등 전자

부품 및 전자 소재 전문 제조기업인 이케이와 분주 건조기 등 제조업체인 서강엔지니어링, 천공용 락틀 전문 제조 기업인 디마인드테크 등 3개 기업은 천안 북부BIT 일반산단에 공장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이케이는 2023년 6월까지 1만6528㎡에 315억원을, 서강엔지니어링은 5000㎡에 30억원을, 디마인드테크는 6600㎡ 부지에 4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2차전지 장비 업체인 이티에스는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단 1만1169㎡에 2021년 말까지 151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고, 전기차 부품 업체로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단 내에 입주해 있는 영화테크는 8000㎡의 부지에 2021년 6월까지 6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한다.

철근과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로 당진시 석문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환경철강공업은 석문산단으로 터를 옮긴다. 이 기업은 석문산단 24만5000㎡의 부지에 2023년 말까지 3500억원을 투입, 최신 설비를 갖춘 공장을 건설한다.

환경철강공업의 이번 투자 결정으로 석문산단은 분양률이 34.47%에서 40.5%로 상승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속 구조물 제작업체인 DHMC와 화장품 관련 업체인 하이드로포테크, 목재 방부제 업체인

씨피켄 등은 당진 송산2일반산단 내에 공장을 신설한다.

전남 영암에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당진에 새롭게 공장을 건설하는 DHMC는 내년 말까지 1만6720㎡에 270억원을, 하이드로포테크는 올해 말까지 7987㎡에 140억원을, 씨피켄은 2022년 9월까지 7290㎡에 50억원을 투자한다.

청양과 예산 등 내륙권에는 에스엠 케미칼과 나무들, 남양산업, 에이원케미칼, 삼보로, 영신에프앤에스 등 6개 기업이 총 589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와이퍼 조립과 병행해 플라스틱 고무 제조업을 추가하는 에스엠케미칼은 청양 화당농공단지에 7089㎡에 23억원을 투자한다.

강화 목제품 업체인 나무들은 울진말까지 14억원을 들여 청양 운곡2농공단지에 5513㎡에 공장을 증설하고, 용접철망 제조업체인 남양산업은 청양 화당농공단지에 1만4053㎡에 6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한다.

위서역과 부동역 등 제조업체인 에이원케미칼, 자동차 부품업체인 삼보오토와 영신에프앤에스는 예산일반산단으로 공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한다.

에이원케미칼은 내년 6월까지 3만286㎡에 113억원을, 삼보오토는 2022년 6월까지 2만6446㎡에 348억원을, 영신에프앤에스는 내년 7월까지 1만3200㎡에 3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업체로 동물용 의약품 제조 중인 케어사이드는 2022년 말까지 502억원을 투자, 태안 기업도시 내 6만1616㎡의 부지에 공장을 이전한다.

도는 이들 19개 기업이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해 가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매년 발생하는 생산액 변화는 4101억3600만원, 부가치 변화는 965억18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장 건설 등에 따른 단발성 생산 유발 효과는 전국 1조7656억9400만원, 충남 8898억2600만원, 부가치 유발 효과는 전국 6230억8700만원, 충남 3097억5600만원 등으로 전망했다.

이 날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일자리 창출 등 도민 생활을 지탱하는 기초가 여러분의 팔과 열정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기업인 여러분이 바로 진정한 애국자'라며 도 내 투자 결정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 지사는 이어 "독일이 제조업 강국으로 군림할 수 있는 것은 탄탄한 중소기업 덕분이다. 400만개의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70%를 담당하고 있고, 그 중 탁월한 기업 1300개를 히든 챔피언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창의와 도전의 기업가 정신을 통해 독일의 히든 챔피언과 같은 역량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진보라 기자

홍성군, 맞춤형 실버 정책 선보여

기초 통계자료 지속 분석... 시대 흐름에 맞는 케어 정책 지속 발굴

충남 홍성군이 100세 시대 어르신들을 폭 넓게 케어하는 맞춤형 실버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어르신 복지 정책을 수혜자별 경로당 이용 어르신, 재가 노인 복지시설 어르신, 독거 노인 정책으로 나눠 타겟팅하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선보인다.

재가 노인 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방문 요양 서비스, 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등을 총칭한다.

우선, 재가 노인 복지시설 어르신 케어 정책으로 거동 불편 어르신 보행 보조기 지원사업을 선보인다. 40명의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장기 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 받지 못한 등급 외 자를 대상으로 해 복지 수혜 대상

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행기 1대당 25만원 범위 이내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100%, 차상위 92.5%, 일반 85%까지 차등 지원한다. 7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군은 또한 상반기 65세 이상 저소득 재가 노인 147명에게 밀착한 배달의 정책 혜택을 제공했으며 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 (사)공감사랑 나눔회 2개소에서 하루 15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주 5일 무료 중식을 제공해 수혜자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한, 군은 1500명의 어르신들에게 독거 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을 제공했으며 독거 노인 공동생활 지원체 운영사업, 방문 건강 관리 시스템도 연계 추진해 독거 노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감시 시스템을 크게 강화했다.

그 밖에, 경로당 370개소에 대해 이용 어르신들의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 어르신 1만여 명에게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분기별 3회 제공한 바 있으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공기청정기 800대도 보급 완료한 바 있다.

한편, 군이 충남도 통계정보관에서 입수한 결과에 따르면 관내 독거 노인 수의 경우 지난 2017년 6263명으로 2013년 5814명 대비 약 8%가 증가했으며 재가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수도 2013년 307명에서 365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 관련 기초 통계자료를 지속 분석해 시대 흐름에 맞는 어르신 케어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래 기자

황선봉 예산군수, 민선7기 출범 1주년 맞아 '소통·봉사'

환경 미화활동·배식 봉사 등

황선봉 예산군수가 민선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뜻 깊은 하루를 보냈다. 황 군수는 1일 새벽 격식과 관행을 탈피하고 군민 가까이에서 군민을 섬기는 서민 군수가 되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며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새벽을 열었다.

황 군수는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예산을 구석구석을 돌며 각종 쓰레기를 치우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이어 30여 명의 환경미화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벽부터 깨우친 예산군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환경미화원을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새벽에 환경 미화활동을 펼친 황



황선봉 예산군수는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예산을 구석구석을 돌며 각종 쓰레기를 치우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군수는 점심시간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300여 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자로 나서 준비된 음

식을 정성껏 대접하며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영래 기자

서산시립도서관, 정제승 작가 초청 강연

2019년 범시민 한책읽기운동

서산시립도서관(관장 이경식)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산시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2019년 범시민 한책읽기 운동 정제승 작가 초청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KAIST 교수이자 뇌과학자로 10년 이상 강의를 펼쳐 온 베테랑 강연자인 정제승 작가가 강연자로 나선다.

강연은 올해 서산시 범시민 한책읽기 운동 일반 부문 도서로 선정된 '열두 발자국'을 토대로 하며, 현실

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과학적 조인과 삶의 통찰을 전해 줄 것으로 기대감을 높인다.

시립도서관은 올 초 범시민 한책읽기 운동 선정도서로 일반 부문에 정제승 작가의 '열두 발자국', 아동 부문에 노경수 작가의 '하얀' 검은 새를 기다리며' 2권을 선정할 바 있다.

지난 3월9일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정도서 선포식에는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해 서산의 독서열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이후 가족 독서 릴레이와 독서 감상문 공모가 초등

및 청소년, 성인 전 연령층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이경식 서산시립도서관장은 "이번 정제승 작가 초청 강연과 함께 선정 도서 독후 감상문 공모 및 시상, 독서 토론회 등 관련 행사를 연중 추진해 서산 시민들이 수준 높은 독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범시민 한책읽기 운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강연 참가 신청은 서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수강신청 (<https://www.seosan.go.kr/citylib/index.do>), 전화(041-660-2588) 및 팩스(041-661-8099)로 접수하면 된다.

■이방진 기자

류일희 청양소방서장 취임

청양소방서는 1일 오전 9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류일희 제4대 청양소방서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류일희 소방서장은 지난 1964년 공주출생으로, 1990년 공작에 첫 발을 디딘 후 충남소방본부 종합상황팀장, 충청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후 제4대 청양소방서장으로 부임했다.

류일희 소방서장은 평소 합리적이고 강한 업무 추진능력은 물론, 재난 현장에서 정확하고 빈틈 없는 통솔력을 갖춘 소방 행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래 기자

논산시, 문화관광 안내도우미 강좌

논산시(시장 황병선)가 미래의 문화관광 해설사를 꿈꾸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2일부터 문화관광 안내도우미 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지역의 문화·유적 및 관광 자원에 대한 학습을 통해 논산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고

취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애항심 고취를 통해 시민 스스로 우리 지역에 대한 관광 자원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고, 문화관광 해설사로서의 꿈을 실현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해설 안내 서비스 등 이론과

■이승민 기자

(주)오래들
Oredde Corporation

2019 중앙일보
건강기능식품대상 수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남자를 위한 활력충전 울트라포맨

5중 복합 건강기능식품

아연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아연은 체내 200개 이상 효소의 구성성분으로 대사과정이나 반응조절에 관여하며 RNA/DNA와 같은 핵산의 합성에 관여하므로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관여하고 외부 유해물질로부터 세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B2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 B2(리보플라빈)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여러가지 효소반응에 관여하는데, 특히 열량 대사에 중요하며 세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물질대사에 참여합니다.

비타민D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D는 지용성비타민으로 세포막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며, 항산화 물질로서 활성산소를 무력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간경증과 회복이 필요하신분 ●정상적인 면역기능이 필요한 남성 ●과도한업무로 지치거나 힘든분 ●과격한 운동을 자주 하는 분 ●항산화 영양소 섭취가 필요한 분 ●활성산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분 ●건강한 신진대사를 원하는 분 ●체력관리가 필요한 분 ●사생활이 소변이 나오지 않아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 ●노화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이 나빠진 분 ●노후 후 소변이 남는 노스피드 분 ●소변이 자주 마려우신 분 ●오래 앉아 계신 분 ●전립선건강관리가 필요하신 분

런칭기념

3개월분 + 1개월분

88,000원

6개월분 + 2개월분

148,000원

주원료: 아연, 비타민B2, 비타민D, 소팔메토, 셀렌(셀레늄)
부원료: 홍삼, 마카, 옥타코사놀, 은행잎, 산수유, 마늘유, 비수리, 오자
섭취량: 1일 1회, 1회 1캡슐(500mg)

주문전화 080-790-5000 온라인주문 www.arambi.kr



지난 6월27일부터 28일까지 엑스포컨벤션센터 등에서 개최된 '2019 마이스 여수 포럼'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 '2019 MICE 여수 포럼' 성료

'Better Yeosu, Future Mice' 주제... 지역 마이스 산업 나아갈 방향 고민

지난 6월27~28일 엑스포컨벤션센터와 유담호텔리조트에서 열린 '2019 마이스 여수 포럼'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포럼에는 전국의 마이스·컨벤션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 마이스 관련 대학생 등 25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Better Yeosu, Future Mice'를 주제로 지역 마이스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첫 날은 스마트도시 전문가인 연

세대학교 윤은주 교수가 주제 강연에서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스마트 도시 인프라 확장이 마이스도시로 성장하는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주)링크팩토리 이형주 본부장은 '모든 베뉴(Venue)는 여가시간을 가지고 경쟁하며, 여수는 유니크(unique)한 여수 브랜드를 파는 도시 마케팅을 해라'고 역설하면서, 도시 디자인과 마케팅에 대한 현장 경험을 가감 없이 소개해 청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양대학교 노동형 교수는 차별화된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 4차 산업 혁명을 MICE로 연결하고 창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디자인 전문가인 스타피시 컴퍼니 김한상 대표는 디자인 생김에 의한 콘텐츠 서비스 전략을, 컨벤션 센터 주변에 관광인프라 시설 구축을 통해 체류시간을 늘리는 전략을 고양 상품회의소 구성진 사무국장이 발표했다.

이틀 날은 지역 마이스 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전남대학교 강신겸 교수가 좌장을 맡고, 여수시 이수남 MICE유치팀장이 여수시 MICE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사)한국 MICE협회 김응수 회장, 디오션호텔 유광현 부사장, 여수MICE협회 이창재 사무국장은 MICE 인증도시 여수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김재오 호남본부장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엑스포공원 물놀이장 5~6일 개장

물놀이장 내달 15일까지·돌머리해수욕장 내달 18일까지 운영

'친환경 생태관광의 메카' 전남 함평군이 여름철 피서객 맞이 위한 민반의 준비를 마쳤다. 1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역 대표하게 휴양지인 돌머리해수욕장과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이 각각 이달 5~6일 일제히 개장한다. 지난 2016년 '전국 청정해수욕장 20선'에 선정되기도 한 돌머리해수욕장은 깨끗한 갯벌, 아름다운 낙조, 상쾌한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전남 지역 대표 피서지다. 총 26km에 이르는 아름다운 해안선,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된 천혜의 갯벌은 재미와 휴식을 동시에 볼잡고 해질 녘 서해 바다를 붉게 채색하는 낙조는 보는 이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 또 뱀장어 잡기(7월5일 오후 4시, 7월27일, 8월3일, 8월15일 오후 2시) 바지락 캐기, 갯벌 생태 체험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

에게 그야말로 안성맞춤이다. 특히, 2017년 돌머리지구 연안 유희 개발사업까지 준공되면서 불거려, 즐길거리가 대폭 늘어났다. 안전상 바다 입수가 쉽지 않은 어린이들을 위해 워터버킷, 워터슬라이드 등의 놀이시설을 갖춘 1500평 규모의 어린이 풀장이 기간 중 상시 운영된다. 그 바로 옆엔 주변 해수를 끌어와 만든 2300평 규모의 해수풀장이 있어, 서해안임에도 밀물·썰물 구분 없이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한 나절 계속된 물놀이로 그만 싫증이 난다면, 소나무 숲을 가로지르는 해변 탐방로(612m)도 있다. 해안가를 둘러싼 이 곳은 바다 풍경 속 짙은 소나무 향이라는 다소 이채로운 광경을 연출하며 지친 몸을 쉬게 하기에 최적이다. 바다를 향해 목재데크로 조성된 갯벌 탐방로(405m)도 빼 놓을 수 없다.

낮에는 게, 조개 등이 살아 숨 쉬는 광활한 갯벌을 관찰할 수 있는 이곳 은 밤이 되면 형형색색의 LED 조명으로 물든 밤바다를 감상할 수도 있다. 숙박용 텐트, 오토캠핑장 내 카라반 등 숙박시설도 갖춘 돌머리해수욕장은 오는 7월5일부터 8월18일까지 총 45일 간 운영된다. 미취학 아이들과 함께하는 피서를 계획한다면 6일 개장하는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이 제격이다. 2010년 문을 연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은 파도풀(782㎡), 유아풀(78㎡), 어린이풀(234㎡), 슬라이드풀(1,055㎡), 워터버킷(251㎡)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춘 가족형 워터파크다. 특히, 이 곳은 어느 물놀이장보다 깨끗한 수질로 정평이 나 있다. 2개의 정수시설이 하루 3000톤의 물을 끊임 없이 정화해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또 시설 규모에 비해 안전요원이

많이 배치돼 있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80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될 예정이며, 이 중에는 인명구조 자격증을 갖춘 전문 구조요원도 2명 포함돼 있어 더욱 안전한 물놀이 환경이 조성됐다. 물놀이 도중 질 수 있는 휴게·편의시설도 하천 복개를 통해 올해 100여 평을 더 늘리면서 지난해보다 훨씬 넓혀졌다. 2000평에 달하는 그늘막과 차광막, 560평 규모의 텐트장은 물론, 피크닉테이블, 선풍기, 물품 대여소, 수유실, 의료반 등이 완비됐다. 여기에 여타 물놀이장과는 달리 조리된 음식물부터 배달음식까지 반입이 가능해(취사는 불가) 지난해 이용객만 6만7000여 명, 수입액으로는 6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은 6일 개장해 내달 15일까지 총 41일 간 운영되며 이용요금은 성인(만 13~64세) 9000원, 소인(만 3~12세) 7000원,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입장은 오후 5시)까지다.

호남본부 오광오 기자

담양군, 가족과 함께하는 금연 힐링 캠프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지난 달 29일부터 1박2일 간 국립장성숲체원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금연 힐링 캠프'를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 가족 43명과 함께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금연 힐링 캠프'는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복권위원회에서 지원하는 '2019 나눔의 숲 캠프'에 담양군보건의료소가 2년 연속 선정, 국립장성숲체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됐다.

이번 캠프에서는 금연 및 음주 폐해 예방 교육과 기초 검진, 대사증후군, 개인별 성격유형 검사, 레크레이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이어 국립장성숲체원에서 마련한 벌레 퇴치제 만들기, 목재 카프라 쌓기, 스토리가 있는 가족역사 만들기 등의 체험도 함께했다. 한편, 군 보건소는 오는 5일 전남금연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해 전문 치료형과 일반형 금연



담양군이 지난 달 29일부터 1박2일 간 국립장성숲체원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금연 힐링 캠프'를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 가족 43명과 함께했다.

캠프를 함께 운영 금연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많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호남본부 오광오 기자

곡성군, 5일 청계동 계곡 재개방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오는 5일부터 2년 간의 자연 휴식년제를 마친 청계동 계곡을 재개방한다고 밝혔다. 청계동 계곡은 도립사 계곡과 함께 곡성군의 대표적인 피서지의 하나로 꼽힌다. 곡성읍과 입면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약산이 큰 웅취를 띠며 달려 오다가 강줄기를 만나 멈춘 형상을 지니고 있다. 동약산 북쪽 골

짜기에서 흐르는 물들이 청계동 계곡으로 흐르면서 풍부한 수량과 꾸밈 없는 자연스러운 풍광을 자랑한다. 특히, 여름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과 함께 더위를 피하기에 그만이다. 또한, 입만 의장병이었던 청계

양대박 장군의 의병활동 본거지라는 역사적 의미도 간직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 동안 도시민들이 많이 찾으면서 취사 및 야영 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로 청계동 계곡의 수질 및 생태

환경이 몸살을 앓았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생태계 회복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난 2017년 7월부터 2년간의 자연 휴식년제를 운영해 왔다. 인적이 끊긴 2년 동안 청계동의 생태가 목표한 대로 회복함에 따라 5일 청계동 계곡이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호남본부 오광오 기자

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상반기 교육 수료식

완도군은 지난 6월27일 (재)전남 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센터장 임영태)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 '해양치유 자원 수산 가공품 창업 실무 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3월27일부터 6월27일

까지 3개월 간 총 162시간으로 진행된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실무 교육으로 창업 관련 아이템 발굴, 시제품 생산 가공

실무, 경영 컨설팅 및 SNS 마케팅 전략 등으로 이뤄졌다. 수료식에서는 17명의 교육생들이 사업계획서 발표회를 병행해 '찐 전

북과 전북 내장 소스를 결합한 간편식' 사업 계획을 발표한 류정화 씨가 대상을 차지했고, '해초 유로수' 사업 계획을 발표한 황유철 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창업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김성환 기자

강진군, 마늘·양파 분야 지원사업 추진

마늘 종구·양파 종자·기자재 지원 및 양파 2700만 판매 알선

강진군은 지난 달 26일 읍·면 대표농가 및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마늘·양파 지원사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협의회는 2019년도 마늘·양파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 협의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위한 자리였다. 군에서는 마늘·양파가 군 주요 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농가를 통한 행정적인 지원에 힘 입어 소득 증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하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내었다. 강진군의 2019년 마늘·양파 재배 면적은 513ha이며 군은 마늘, 양파 종구(종자), 약제, 관적, 기자재, 건조시설 등 매년 예산 지원과 더불어 선진 현장 견학 및 재배 기술 교육을 통해 농가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 쓰고 있다. 또 농촌 노동력 감소와 농번기철 천정부지로 치솟는 인건비 상승과 생

산비 절감을 위해 양파 재배의 기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파종기, 정식기 등 양파 재배작업 기계도 오는 7월 초 일제히 농가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지속적인 하락세인 양파 가격 안정을 위해 증만생종 양파 약 12.7ha를 시장 격리 완료했고, 공무원, 유관기관, 식당 등을 대상으로 강진산 양파 소비 촉진운동을 추진해 20kg 기준 2700여 망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성장 기자

김철우 보성군수, 취임 1주년 첫 날

자연재난 사전 대비 점검 현장 회의

김철우 보성군수는 취임 1주년을 맞이한 1일 아침 주요 간부 공무원, 지역 주민과 함께 벌교 장좌배수평포장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현황을 점검하는 현장 간부회의를 실시했다. 이 날 회의에서 지역 주민들은 김군수와 함께 벌교 지역 배수 펌프장 시설 현황, 여름철 물놀이 시설 운영 계획 등을 보고 받았으며, 벌교읍내 배수 펌프장 2곳과 다중 밀집시설인 벌교역 주변 도로 확장 공사 현황을 둘러 보며 우기철 대비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김 군수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격려하면서 폭염 대비 방법을 설명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눈물 대기 등에 대해 당부하며 한발 앞선 소통, 두발 빠른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행보를 이어 갔다. 현장회의를 진행한 김철우 군수는 지난해 7월1일 전국에서 제일 먼저

취임식을 취소하고, 폭우가 쏟아지는 보성 동암고 아래에서 첫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해 대응 현장에서 첫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김 군수는 보성군을 재난 위기 상황에서 구하면서 읍·면 단위 '전국 최초'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 냈다. 호된 신고식을 치렀지만 군민과의 첫 대면식에서 믿음직한 군수의 모습을 확실히 각인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철우 군수는 "지나해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만 군민과 행정이 하나 돼 재난안전 분야 전관왕이라는 영예를 안았다"며 "재난은 발생 시점에 대처하면 피해가 커지므로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천석 기자

광주시 남구

농촌테마공원에

'코스모스 꽃길' 조성

올해 하반기 문을 열 예정인 빛고을농촌테마공원에 9372㎡(2840평) 규모의 코스모스 꽃길이 조성된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1일 광주시민들에게 정감 있는 가을 정취를 제공하고, 주변 시설과 연계한 관광 자원 활용을 위해 빛고을농촌테마공원 내에 대규모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지난 달 말부터 빛고을농촌테마공원 내에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위한 예초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예초작업 등 사재 기반 정리가 끝난 뒤에는 코스모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퇴비 작업을 한 뒤 파종 작업과 본격적인 유지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빛고을농촌테마공원이 문을 열 예정인 오는 10월 시점에는 이 곳 대춘 들녘에 각각각색의 코스모스가 만개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찍는 포토 존으로서 큰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호남본부 오광오 기자

김종식 시장 "위대한 목포시대 함께 완성하자"

민선7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민선7기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종식 목포시장은 1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주요성과와 향후 시장 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김 시장은 "지난 1년, 목포의 변화와 도약을 염원하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시간과 역량을 집중했다. 새로운 목포, 위대한 목포시대를 향한 발걸음에 성원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앞으로의 시장 운영 계획에 대해 밝히며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 도약,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목포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다 하겠다. 부정과 부당, 불공정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포용하고 경쟁하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밝힌 민선7기 취임 1년 주요 성과를 살펴 보면, 가장 먼저 도시 마케팅을 통해 목포라는 브랜드를 국내·외에 널리 알렸다는 점을 크게 평가했다. 그는 "맛의 도시 선포로 이제는 '맛' 하면 '목포'로 통한다. 또 국제 슬로시티연맹 가입에 성공했다. 근대역사문화도시 목포는 또 하나의 수 준높은 도시 브랜드를 갖게 된 것이다"고 힘 쥘 말했다.

목포 브랜드의 높아진 위상은 100만 관광객 도시 도약의 토대가 되고 있으며, 관광객 증가와 급작한 대외행사 유치라는 내비효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대규모 인원이 참가한 한국초등학교교정협의회 하계 연수회,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제1회 섬의 날 행사, 2019 전라남도혁신박람회,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 15세이하 여자 축구대회 등을 유치했다. 아울러, 미래 성장을 위한 방향도 정립했다고 밝히며, 서남권의 공동

번영을 위한 상상 비전 수립, 신재생 에너지산업 추진 기반 마련, 고부가 가치 수산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벨트와 추진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대양산단 분야에 노력한 결과, 취임 이후 20개 기업과 1234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4개 기업을 실제로 유치해 현재 57.50%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대규모 국가사업 선정으로 총 5467억원의 국고 예산을 확보하면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는 점, 달리도항과 외달도 어망촌항의 어촌 뉴딜300사업 선정, 옛 목포경찰서 부지에 통일부 전남통일센터를 비롯한 3개 공공기관 유치와 전남 유아인공지능교육원 서버부원을 유치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진철·질서·정결·나눔의 목포사랑운동 전개로 지역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 표했다. 김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다스기지 변화로 집약해 소개했다. 먼저, '즐거움 변화, 서남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이다.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 맛의 도시 목표 완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이도되고 있는

전남도, 귀농·귀어·귀촌 모두 늘어

2018년 3만910가구... 귀농 2026가구 2위·귀어 320가구 1위

전라남도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 귀농·귀어·귀촌인이 줄어든 가운데 전남으로 3만여 가구가 유입돼 귀농인, 귀어인, 귀촌인, 세 분야 모두에서 유입 가구 수가 늘어난 유일한 광역자치체로 기록됐다고 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2018년 귀농·귀촌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3만 910가구 4만761명이 2018년 한 해 동안 전남으로 귀농·귀어·귀촌했다.

전남 귀농인은 2만 267가구 2963명, 귀어인은 320가구 449명, 귀촌인은 2만8562가구 3만7349명이다.

전국 귀농·귀촌 가구는 전년보다 6444가구, 가구일 수는 2만8561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인 반면 전남은 귀농가구 101가구(5.2%), 귀어

가구 37가구(13%), 귀촌가구 389가구(1.4%)가 늘었다.

전국적으로 귀농가구가 늘어난 곳은 전남과 세종, 2곳 뿐이고, 귀어가구가 늘어난 곳은 전남과 울산, 강원, 충북, 경북, 제주이며, 귀촌가구가 늘어난 곳은 전남과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전북, 경북, 제주 등이다.

전남 지역 귀농·귀촌가구는 연령별로 30대 이하가 1만1946가구로, 전체의 38.6%를 차지하고 있다. 젊은 청년층이 청정지역 전남에서 친환경 농업 등 전남 농업의 경쟁력을 보고 귀농·귀촌을 많이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7월 민선7기 이후 인구 감소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인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수도권 등 대도시 예비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찾아가는 귀농·귀촌 설명회', '도시민 현장 체험활동'을 펼쳐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도 한 몫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증가하던 귀농·귀촌의 추세가 이제는 거품이 견고하고 차츰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의 흐름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다양하고 독특한 귀농·귀촌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대도시 예비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해 수도권에 '전라남도 귀농·귀촌종합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최초로 '전남에서 먼저 살아가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 정착을 위해 창업 자금(3억원, 1%), 주택 구입

자금(7500만원 2%)을 지원하고, 임시 거주공간인 '귀농인의 집' 91개소를 운영하며, 교육·실습·주거공간을 일괄 지원하는 '귀농 체류형 지원센터'를 30여원을 들여 함평에 설치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 어울림마을' 14개소를 조성하고, '찾아가는 문화교육'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현호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귀농·귀촌하기 가장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시군 관계자·귀농·귀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전남으로 찾아오는 귀농·귀촌인이 전남 농촌과 농업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우 호남본부장



정현복 광양시장 "시민행복 위한 노력"

민선7기 1주년 맞아 7월 정례조회 개최

정현복 광양시장(사진)은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7월 첫째 날 개최된 정례조회에 200여 명의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장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더욱 더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시장은 이날 지난 6월 추진된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5년 연속 수상과 산림복지단지 지정, 백운산 치유숲 개장을 차질 없이 추진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7월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으로 피서철 안전사고 예방과 여름철 방역 및 식품 위생 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와 함께 최근 5월 말 기준 광양

시 출산율이 5.8% 증가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청년 정책에 대한 결실"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시책의 내실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 날 정례조회에서는 다양한 봉사활동과 취약계층 지원으로 나눔을 실천한 이 달의 봉사왕 정숙송 씨를 비롯해 올해의 모범 이·통장 등 31명의 시민이 시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아울러, 상반기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된 최은환 감사팀장과 엄은진 도시재생과 주무관이 전 직원의 축하 속에 국무총리상을 전수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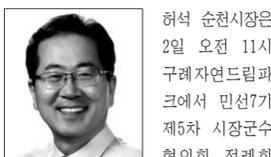
■김재우 호남본부장

정정

확대간부회의



민선7기 제5차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회의



초·중학생 미국 어학연수 사전 설명회



민선 7기 제5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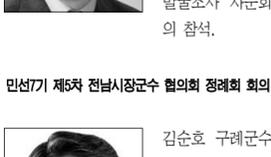
제1기 녹동농협 조합원대학 개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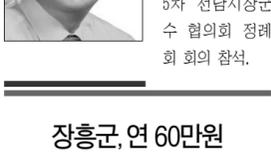
시중 내동리 쌍무덤 발굴조사 자문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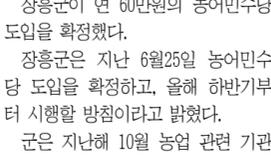
민선7기 제5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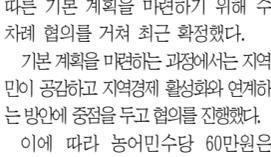
장흥군, 연 60만원 농어민수당 도입 확정



구례군, 민선7기 1주년 기념 정례조회



구례군, 민선7기 1주년 기념 정례조회



구례군, 민선7기 1주년 기념 정례조회

구례군, 민선7기 1주년 기념 정례조회

구례군, 민선7기 1주년 기념 정례조회

영암군 내동리 쌍무덤, 영산강 유역 고대 마한 최상위 수장층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기본계획' 발굴조사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령)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영산강 유역의 고대사회 실체를 밝히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영암 내동리 쌍무덤(전라남도 기념물 제83호)의 발굴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해당 무덤은 영산강 유역 고대 마한시대 최상위 수장층의 고분으로 확인됐다.

조사는 전남도 산하기관인 전남문화관광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소장 이병기)에서 실시했으며, 2018년 시굴

조사를 시작으로 전반적인 고분의 축조 양상으로 파악했고, 2019년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고분의 분형과 주구 및 매장 주체시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현재까지 고분의 분형은 주구의 형태로 살펴 볼 때 방대형으로 확인됐으며 6기의 매장시설(석실 1기, 석곽 3기, 옹관 2기)이 중복돼 확인됐다. 출토유물은 석곽에서 대도(大刀)를 비롯해 자라병, 유공광구수호 등 다양한 토기들과, 곡옥, 대동옥 등을 포함한 수백점의 유리구슬이 출토됐다. 이 외에

도, 고분 주구에서 동물형 형상식편도 출토돼 일분과의 교류관계를 알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금동관편의 확인이다. 금동관편 중에는 유리구슬과 영락(瑛路)이 확인되는데 나주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금동관(국보 제295호)에 장식된 유리구슬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연구자료에 따르면, 신촌리 금동관은 백제보다는 대가야의 양식에 신라적인 요소를 띠고 있어 백제와 구분되는 마한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최고의 위세품으로 확인되고 있

다. 따라서, 당시 영산강 유역 고대 마한사회 영암 내동리 쌍무덤에 안치된 피장자의 지위나 권위는 나주 신촌리고분의 피장자와 더불어 이 지역 일대 최고의 권력자로 추정된다.

영암군과 재단은 "올해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 조사를 실시해 전반적인 고분의 형태를 파악하고 고분군의 보존 정비, 장기적인 종합 정비 계획도 세울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마한 문화권을 관광 자원화해 관광산업과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암군에서는 발굴조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일 오후 3시 발굴조사 현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호남본부 오광오 기자

무안군, 민선7기 1주년 행사 서한문으로 대체

무안군(군수 김산)은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군정 성과와 향후 군정 방향에 대한 대 국민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번 민선7기 1주년 행사는 최근 양파, 마늘 등 우리 지역 농산물 가격 하락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취지에서 기념식과 기자회견 등을 하지 않고 총환담 참여와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간소하고 내실 있게 추진했다.

서한문에는 무안국제공항 연 이용객이 56만명을 돌파했고, 호남고속철

도 무안공항 경우, 2단계 사업을 위한 국비와 활주로 연장을 위한 기본 설계비가 확보됐으며, 또한 최근 항동부로부터 산업단지 지정 계획이 승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승보 기자

진도군, 지역화폐 20억원 '진도 아리랑 상품권' 발행

진도군이 1일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진도 아리랑 상품권'을 발행했다.

이 날 군은 진도읍 진도연합새마을금고 주차장에서 지역화폐 '진도 아리랑 상품권' 발행 기념 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상품권 판매를 개시했다.

선포식에서는 이동진 진도군수를 비롯해 진도군의회, 기관·단체장, 상가 상인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품권 1호 가맹점 지정서 전달식과 함께 상품권 구매, 주변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지역상품권 발행은 지역 자금의 역의 유출을 방지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등 건전한 소비 문화 확

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다.

또 오는 19일 솔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개장에 맞춰 리조트 이용객과 관광객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20억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했다.

상품권은 2000원·5000원·1만원권 3종이며, 농협·축협·신협·새마을금고 등 17개소 판매 대행점에서 7월 한 달간 발행 기념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일 50만원,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상품권 가맹점은 음식점, 슈퍼마켓, 주유소, 의류매장,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관광시설 등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800여 개소로 점차 가맹점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호남본부 오광오 기자

이동진 진도군수는 "지역화폐인 진도 아리랑 상품권 발행은 지역 자금의 역의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품권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익을 누릴 수 있게 5% 할인된 금액으로 합리적인 소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군수는 "상품권 도입의 성패는 가맹점 확보가 관건으로 관내 1200여개 가맹점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각종 복지비, 시상금과 공직자 복지 포인트 등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유통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호남본부 오광오 기자

순천시 '전국 빅데이터 공모전' 최우수상

2019년 순천 방문의 해 연계 관광 빅데이터 분석

전남 순천시가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지난 6월28일 주최한 제4회 공무원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은 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의 기반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부산시청에서 개최된 최종 발표대회에서 순천시는 '2019년 순천

방문의 해와 연계한 관광 빅데이터 분석'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순천시는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공통 기반 시스템인 '헤안'을 통해 뉴스 및 SNS 노출 건수와 관광객 수의 연관관계를 분석했고, 키워드 검색건 수가 일부 관광지에 편중돼 있음을 확인하는 등 빅데이터를 분석한 관광 정책 추진 등 홍보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직원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헤안'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해결해 주는 상황극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과학적 행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과제 발굴을 통해 부서 간 협업 및 행정 업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헤안이 만드는 대한민국!'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47개소에서 응모해 10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김재우 호남본부장

고흥군, 향토문화재 지정 심의회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6월26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제1차 고흥군 '향토문화재 지정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그 동안 관리하지 못했던 향토문화유산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해 보존 관리하기 위해 진행된 심의회로, 고흥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날 총 10건을 심의해 된 금액으로 합리적인 소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군수는 "상품권 도입의 성패는 가맹점 확보가 관건으로 관내 1200여개 가맹점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각종 복지비, 시상금과 공직자 복지 포인트 등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유통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호남본부 오광오 기자

광주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개소

광주 동구(구청장 정창진)는 지난 1일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청년·예비 창업자의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동구는 이날 예비 취·창업자들을 비롯해 박주선 국회의원, 이병훈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 시·구의원, 주민자치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전문가와 함께 취·창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창업지원센터는 앞으로 '지역상권이 살아 나는 일자리 통합 지원 및 창업 허브 구축'을 목표로 △창업 보

광주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개소

육을 통한 혁신 창업기업 육성 △소상공인 맞춤형 취·창업 종합 지원 △일자리 협력 체계 및 네트워크 허브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6월28일 중국 국가 인증 창업 지원기관 대공방(大公坊)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전문가 지원 1:1 창업 특화 멘토링, 특허·기술 개발 지원, 민간 투자기관 연계 지원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 I-PLEX광주, 조선대 산학협력단 등 유관기관과 손 잡고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를 실시해 윈윈팀 취·창업을 종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동구는 6월17일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에 동안 동구창업지원센터 2층 교육장에서 예비 창업자·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창업스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호남본부 오광오 기자

구례군, 민선7기 1주년 기념 정례조회

구례군은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특별한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민선7기 군민을 위한 열정은 멈추지 않습니다'는 주제로 지난 1년간의 군정 성과를 영상으로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구례군 미래 비전에 대해서 공직자와 공무원이 시간을 가졌다.

1년 전 오늘 재해지역 현장에서 민선7기를 시작해 군민과의 대화, 맘터대화, 장터대화, 직급별 워크숍 등 다양한 소통의 시간, 천은사 입장로 폐지협약, 농관원 구례분소 개소,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등 군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열심히 달려 왔던 기억을 되새겼다.

김순호 군수는 "민선 7기 1년을 맞아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군민들의 성원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 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2년차에도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서, 군민들의 꿈이 실현되는 구례, 꼭 만들어보자"고 구례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김종철 기자

장흥군, 연 60만원 농어민수당 도입 확정

장흥군이 연 60만원의 농어민수당 도입을 확정했다.

장흥군은 지난 6월25일 농어민수당 도입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0월 농업 관련 기관 단체와 비농업단체를 포함, 농어민수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농어민수당 도입 및 지급에 따른 기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거쳐 최근 확정했다.

기본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지역민이 공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농어민수당 60만원은 장흥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신청 년도 직전 1년 이상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실직자는 농·축·어·임업인이다.

■정규근 기자

2022년 국제 식물생장물질 학술대회 유치

경주화백컨벤션뷰로-포스텍, 유치 노력 결실... 40여 개국 생물학자 및 전문가 800명 참가

경주시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사장 박영호)는 생물학 분야 주요 국제학술대회인 '2022년 국제 식물생장물질 학술대회 (IPGSA: The 2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lant Growth Substances)'를 경주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포스텍(생명과학과 황일두 교수), 한국식물학회, 경주컨벤션뷰로와 공동으로 유치

한 국제 식물생장물질 학술대회는 1937년 프랑스(파리)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유럽, 아시아, 미주 지역 등을 순회하며 3년 주기로 개최되는 유서 깊은 국제학술행사로서 40여 개국에서 800여명의 학자, 전문가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유치단은 지난달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19년 국제 식물생장물질 학술

대회'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 펼쳤고, 국제식물생장물질협회(The International Plant Growth Substances Association) 이사회에 참가해 경주 유치를 위한 최종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이사회 임원 만장일치로 2022년 경주 개최를 확정지었다. 경주화백컨벤션뷰로는 다년간의 유치 과정에서, 컨벤션센터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다양한 종류와 가격대의 숙박시설, 풍부한 문화체험프로그램 등 경주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경주 유치 지지를 얻어 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박영호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사장은 "지난 2016년에 개최된 국제 애기장대 학술대회, 2019년 Cold Spring Harbor Asia 2019 그리고 2022년 개최예정인 국제 식물

생장물질 학술대회까지 식물 관련 주요 국제학술행사가 경주에서 줄줄이 개최되고 있어 경주의 특화컨벤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사 학술회의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가자와 주최자가 경주를 다시 방문하고 싶도록 MICE 인프라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석 기자

이철우 도지사 취임 1주년 간부회의

기자브리핑·직원과의 만남의 시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방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신남방 시장개척 및 새마을운동 확대를 위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문을 마친 후 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도청에 출근해 실국장들과의 간부회의로 첫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11시부터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주요 성과와 향후 도정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가진 후 오후에는 도청 동관관에서 이철우 도지사, 김영삼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도정발전 유공자를 비롯한 도청직원과 출자출연기관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만남의 날' 행사를 열고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직원 만남의 날 행사는 ▲문화공연 ▲국민의례 ▲도청 영상콘서트 시상 ▲정부포상 및 도지사 표창 시상 ▲도지사 격려말씀 ▲조직문화 활성화 다짐대회 및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문화공연으로 도립 국악단이 '신티리(故 이준호 작곡의 축제를 실내악으로 재편성한 곡)'와 '포퓰리어(재일 피아니스트 양방언의 연주곡)' 연주공연을 펼쳐졌다.

이어 도 소속 실국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바람 행복경북 영상콘텐츠 공모' 결과를 발표 및 시상하고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도 소방본부의 '경상북도 주스, 마셔보실래요?'를 상영했으며 상반기 우수공무

원에 대한 표창을 시상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이철우 도지사 취임 1주년을 맞아 도청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짐회의를 하고 퍼포먼스를 가졌다.

도청직원들이 행복한 일터에서 자긍심을 갖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관행에서 벗어나 변화와 혁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간부대표와 직원대표가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짐을 했다. 아울러 도지사, 노조위원장, 도청 전 직원이 도민만족, 직원만족을 위해 '변해야 산다'라는 구호를 힘껏 외치며 다짐이 적힌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결의의 퍼포먼스를 가졌다.

이 지사는 직원 만남의 날 행사를 마친 후에는 2019년 경상북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김천시 어모면에 소재한 (주)대정을 방문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현판식을 갖고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취임 1주년을 겸소하게 보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1년 동안 도민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자동차로만 12만km를 달렸다. 앞으로 지역경제 성장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만 보고 더욱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존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공무원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남형기 기자

울진, 스마트축산 ICT 한우단지 시범조성사업 국비 공모 선정

진북리 일원에 총2600두 규모 조성

울진군은 지난 6월 10일 제59회 도민체전 개최지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축산단지 중 한우단지 조성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울진군은 축산의 분뇨·악취, 질병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지향적인 축산 발전모델을 제시하고자, 지난해 축산관련단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내 공모를 실시하여 4개소(울진읍 근남면, 북면, 매화면)를 접수했다.

이후, 신청부지 4개소에 대한 한우단지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사업부지 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을 수행하여 근남면 진북리 일원을 농식축부 공모사업에 신청, 최종 시범사업 조성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울진군 근남면 진북리 일원

에는 2022년까지 부지 평탄화 및 도로, 용수, 전기 등의 기반시설 조성, 관제 및 교육센터, 축사시설 입주에 총 171억원(국비 62.5, 도비 9.75, 군비 22.75 자부담 76)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스마트 축산 ICT 한우단지는 16ha의 부지에 한우농가 100두 규모 26농가, 총 2,600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ICT 기술을 접목하여 그동안 악취와 분뇨, 질병 등 기피산업으로 인식되었던 축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갈 예정이다.

전찬걸 군수는 "도민체전 개최를 통해 스포츠 울진으로, 한우단지 조성으로 청정축산의 선진지로 도약할 기회"라며 "한우단지를 울진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관광사업과도 연계하여 청정축산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남형기 기자



이희진 영덕군수가 영덕군 민선7기 1주년 기념행사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선6기 소통의 성과, 민선7기 참여민주주의로 계승

영덕군, 민선7기 1주년 기념행사... 주민·동료와 군정방향 공유

영덕군 민선7기 1주년 기념행사가 7월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른 아침 주요 간부와 함께 영덕읍 흥촌탐사에서 참배를 마친 이희진 영덕군수는 기념식에 앞서 (주)대호수산을 탐방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근로현장을 살폈다.

기념식에는 군정발전 유공 민간인과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참석해 이 군수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위촉장 수여식은 현재 영덕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서 이후 차상수 기획감사실장이 직접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을 브리핑했다. 민선 7기 2년차를 맞은 이희진 군수는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기념사에서 지난 1년의 성과와 향후 군정방향을 밝힌다. 민선7기 출범 후 4년의 큰 그림, 즉 공약을 확정하고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말 영덕군은 태풍 콩레이의 내습을 겪었다.

하지만 전국 자원봉사자의 도움과 성금에 힘입어 피해를 수습하고 적잖은 대응으로 국비 1,235억을 피해 복구비로 확보했다. 복구개선사업에 집중된 영덕군은 현재 94%의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 초 개소한 스마트통합관제센터가 24시간 CCTV 500여대를 모니터링하며 재해와 범죄를 예방하는 등 이 군수는 군정성과로 안전사회의 기반 구축을 우선으로 꼽았다. 또한 축산 블루시티 조성, 근대역사문화재생, 사계절 해수욕장 사업 등으로 문화관광을 활성화했고 더욱 친수공간, 오심천 들레길, 공공실버주택, 버스 교통카드 도입 등 정주여건을 개선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로하스수산물지원센터 연구개발 및 수출지원, 송이장터 운영으로 농산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영덕어산병원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개설, 발상공동체 확대 등 인구감소 대책도 마련했다. 탈원전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은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강구 연안항 확대개발, 중부내륙철도망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2020년의 비전으로 '더 여유롭고 더 가치있게 변하는 영덕'을 제시한 이 군수는 주민중심의 패러다임 정주도시, 관광객 체류중심 도시를 목표로 주민주도적 실행정을 실현하고 2천만 관광객 유치 및 역사문화의 재발견, 여유로운 정주여건 조성, 안전한 영덕 건설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주민참여예산제인데 민선6기 소통행정의 성과를 확대·계승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군정에 참여하는 민주적 시스템을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념식을 마친 후 이 군수는 제1회회의실에서 군정 출임기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오후 3시에는 이전·신축한 보건소 준공식에 참석했다. 마지막으로 민선7기를 이끌어갈 동료 공직자들과 함께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기생충'을 관람했다. ■남형기 기자

청송군,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성공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달 28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국가지질공원위원회가 청송군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재인증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질공원은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성 또는 아름다움을 지닌 지질현상으로 지질학적 중요성 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고고학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는 지역을 지질공원으로 지정하여 보존과 동시에 교육 및 관광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제도이다. 청송군은 2014년 국가지질공원, 2017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이후 지질공원 의 보존, 지역학생과 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탐방객을 위한 관

광인프라 구축, 지질관련 기관과의 파트너십 형성 등의 활동을 통해 청정 청송의 자연 환경 보존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하여 왔다. 특히 국가지질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운영 현황을 조사·점검하여 재인증 여부를 결정 하는데, 청송군은 재인증을 위해 지난 4월 현장 점검을 받았으며 이번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재인증을 받게 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청송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성달 기자

성주, 관광지 3곳에 여행자센터 설치

한개민속마을·가야산 역사신화공원 등

성주군은 한개민속마을 등 주요관광지 3개소에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행자센터를 설치한다.

이번 여행자센터 설치는 경북도 주관으로 도내 주요관광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10개 시·군, 13개 장소가 선정되었고 그 중 성주군에서는 한개민속마을, 성밖숲,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3개소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비 1억원을 확보하였다.

여행자센터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

에게 다양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관광안내는 물론, 여행자 휴식을 위한 쉼터, 인터넷 검색대, 전자기기 충전, 수화물 보관서비스 등의 수요자 중심의 관광서비스가 제공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문화관광안내소와는 차별화된 여행자센터 설치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성달 기자



일터안전을 위한 첫 단추, 작업전 안전점검으로 채우세요

한 해 산업재해 사망자 약 2천명, 재해자 9만여 명
일터에서 매일 5명이 목숨을 잃고 250명이 다치는 셈입니다.
산업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하기 전 보호구는 제대로 착용했는지? 위험장소에 안전보건표지는 부착되어 있는지?
안전교육은 실시했는지? 위험요소가 있는 공정에 안전작업절차는 마련되어 있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이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성주군, 민선7기 1주년 맞아 광폭 행보

포도 농장 방문·성주참외산업 발전 토론회 개최 등

2019년 7월 성주군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새로운 성주호의 선장 이병환 성주군수가 취임한지 1년이 됐다.

취임 1주년을 맞아 형식적인 1주년 기념행사 등을 일체 하지 않고 민생과 현안을 위해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지난 6월14일 우선 군민의 부름에 답했다.

대장리 김지웅 씨의 포도 농장을 방문해 농장 운영의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고민함은 물론, 같이 땀 흘리며 농촌의 부족한 일손에 힘을 보탬다.

6월18일에는 성주참외산업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의 생산량과 품질에 만족하지 않고 황금빛 성주참외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농민들과 소통했다.

6월21·24일·7월1일은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만나 성주군의 미래 100년이 달려 있는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유치와 각종 현안을 설명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등 간담회를 가졌다.

6월26일은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교육 환경 마련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을 모시고 행복교육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고 7월2일은 불경기 속에서도 곳곳에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돼 주는 지역 발전 우수 중소기업들을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

언론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와 인터뷰를 통해 1년 간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향후 군정 방향에 대한 소신과 계획을 제시했는데,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성주군의 미래 100년을 열어 갈

현인들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유치 △참외산업 육성 △명품 교육 메가 프로젝트 △먹·자·쓰·놀-지역경제 활성화 △세종대왕지태실 세계유산 등재와 생명문화 △성주읍 승격 40주년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큰 틀을 잡고 성주 미래 100년을 열어 갈 계획이다.

민선7기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이병환 성주군수는 "지난 1년보다는 앞으로의 100년이 중요하다.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도시로 성장하고 생명문화도시로의 이미지를 굳건히 하며 6차 산업을 선도하는 군민 중심의 행복성주 건설을 위해 맡은 바 소명을 다 하겠다"고 당당한 포부를 밝혔다.

의성군, 서울 조계사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음력 6월 초하루 맞아 3~5일 열어

의성군은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대도시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음력 6월 초하루 법회를 맞아 3일부터 3일 간 조계사 경내에서 의성군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의성 대표 농·특산품인 의성마늘, 자두, 가지, 버섯, 꿀, 잡곡류 등 20여 가지 품목을 선보이며, 최고 등급의 상품을 시가보다 10~2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아울러, 의성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인 '의성眞'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2019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및 국가 브랜드 대상 등 수상한 의성군 농·특산물 쇼핑물 '의성장날 쇼핑물' (https://mall.usc.go.kr)과 연계해 소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충성고객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의성군은 서울 종로 도심 속에 자리잡은 사찰로 도시민들과 외국인들에게 한국 사찰 탐방의 1번지라도 유

명한 대한불교 조계종 본사와 '농생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의성 브랜드쌀(의성眞쌀)을 공방비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조계사 월간지를 통해 의성군을 홍보하고 신도들을 초청해 농촌 현장 체험행사도 펼치는 등 지역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매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의성군은 지난 2017년부터 조계사 경 내에서 총 6회의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2억여 원의 판매 실적을 올린 바 있다.

황성달 기자

'안동 minute(분) 영화제' 작품 공모

안동 소재·배경의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있는 작품

안동시는 경복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19년 '안동 minute(분) 영화제' 개최를 위한 작품 공모 요강을 발표했다.

지난해 처음 시도됐던 영화제는 올해 2회째를 맞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영화제 이름을 '안동 80초 영화제'에서 '안동 minute(분) 영화제'

로 변경하고, 스마트 시대에 걸맞은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있는 작품으로 안동을 소재로 활용하거나 안동 배경의 내용이면, 성별, 연령, 지역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부문은 초단편(5분 미만), 단편 부문(5분 이상 15분 이하)이며,

부문별로 최우수 작품상 1편, 우수작품상 1편, 장려상 2편, 입선 2편을 선정해 총 12편 224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추후 지역 방송사를 통한 TV 광고 송출, 지역 행사 내 영상 상영 등 안동시 감성 홍보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작품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 (www.andongmovie.kr)에서 오는 10

월1일부터 12월2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모 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 minute(분) 영화제 공모전은 안동을 감성적으로 알릴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화 인력 발굴로 지역 영상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동을 매력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창작자들의 많은 응모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형기 기자

의성군,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 확대

의성군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군 자체 예산을 확보해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성군은 반만 취약지역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정부 지원금을 배부형 태로 지원해 주고 있으나 소득 기준, 태

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본인 부담금 발생해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상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올 7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게 소득 기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9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본인 부담금 신청 방법은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본인 부담금 영수증 등을 지참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산후 조리 도우미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인구 증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황성달 기자

경주시장, 민선7기 취임 1주년 맞아 소통 행보

주낙영 경주시장은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아 1일 아침 일찍 황성공원 충혼탑을 찾았다.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경주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는 초심을 되새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어서 성동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지며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

성화 방안에 대해 상인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후 시청 앞천호에서 열린 정례석회에서는 직원들과 SNS를 통해 격의 없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직원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시장에게 평소 궁금했던 내용이나 건의 사항들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시장은 빔 프로젝터로 송출되는 채팅창을 보며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파격적인 소통을 보여 줬다.

또한, 지난해 7월1일 정식으로 임용돼 공직 생활 1년을 맞는 신규 공무원들과 함께 시장의 성과와 비전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들고 돌잡이 퍼포먼스에 한 데 이어, 전 직원들과 함께 돌떡과 과일 등 간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것으로 취임 1주년 하루를 마감했다.

주낙영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지난 1년 간 많은 성과를 이뤘다. 모든 것이 여기 있는 직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경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민석 기자

영덕군 영해고, 학부모 집단 프로그램

영덕군 영해고등학교(교장 엄기복) 학부모 약 20명은 지난 6월19·27일 2회에 걸쳐 부모-자녀와의 건강한 의사소통을 주제로 학부모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프로그램은 청소년 상담 전문가인 박기원 교수(前 간디고등학교 교장, 현재 대 상담심리 교수)가 진행했다.

학부모 집단 프로그램은 총 2회차에 걸쳐 3시간씩 진행됐다.

1회차는 부모-자녀와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탐구하고, 자녀들의 심리상태 및 소통을 위한 부모로서의 자세 등에 대한 내용을 강의했고, 2회차는 각 가정에서 겪는 자녀와의 갈등, 문제들을 나누며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교육으로 진행됐다.

학부모 연수를 추진한 교사 권순영은 "영해고 학부모님들께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로서의 고민을 상담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드린 것 같아 기쁘다. 바쁜 시간을 내 학부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남형기 기자

안동시, 불법 광고물 적법화

안동시는 7월1일부터 오는 2020년 6월30일까지 불법 광고물 적법화 사업을 시행한다.

불법 광고물은 원상 복구 후 법적 절차를 거친 뒤 재부착해야 하지만 시민의 불편을 덜어 주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하고자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시에서 전수 조사한 옥외 광고물 중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 광고물 8121개에 대해 신청서를 받아 적법하게 처리하고, 허가·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철거 대상인 6404개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적법화 가능 광고물은 광고주나 광고업체가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으로 제출하면 되고,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광고주는 (사)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안동시지부 소속 허가·신고 대행업체를 통해 적법화할 수 있다.

적법화 기간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는 면제되며,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인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 적법화 대상 업소에는 사업 안내문을 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없이 구제하고, 적법화나 자진 정비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광고물 설치 시 반드시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는 선진 광고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사업이 종료되면 불법 광고물로 인해 훼손됐던 도시 경관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형기 기자

안동시, 6·25 유가족 찾기 '우수'

국방부 장관 감사패

안동시에서는 국방부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적극 협력해 지난 6월27일 열린 '경북·대구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설명회'에서 유가족 찾기 우수 행정기관으로 국방부 장관 감사패를 받았다.

국방부 전사자 유해 발굴사업은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하지 못한 12만3000여위 호국 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국립현충원에 모시고 있는 호국 보훈사업이다.

유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국민 누구나 제적등본, 유족증 사본, 전사통지서 사본, 병적증명서 등을 준비해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 확인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6·25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 경찰, 학도병, UN군 유해를 직접 매장,



감사패를 전달 받은 김필상 종합민원실장(오른쪽).

목격 또는 들은 내용이나 일상 생활, 각종 공사 중 전사자 추정 유해, 유골을 직접 발견했거나 들은 내용을 전화(1577-5625)로 제보하면 된다.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남형기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 열어갑니다

지구인에게 필요한 건?

‘능력’입니다.





능력중심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만듭니다.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최대호 안양시장 “시민 성원으로 스마트 행복도시 기틀 다질 수 있었다”

민선7기 1주년 맞아 성과·비전 밝혀... 소통·경제·청년·첨단산업·안전·복지·문화 7대 분야

최대호 안양시장이 1일자로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지난 6월24일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밝혔다. 지난해 7월1일 출범한 민선7기 안양시정은 스마트행복도시의 기틀을 다지는데 숨 가쁘게 달려 온 1년이였다. 대기오염 문제가 갈수록 심화된 석수2동 연현마을 제일산업개발 일원을 공영 개발로 해결책을 찾는데 이어 석수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국비 100억원을 확보(8월31일)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비전 선포(10월9일)와 민선7기 공약사업을 확정했으며, 일지리와 청년 정책을 강화하는 11월1일자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장애인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에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가 하면, 청년 창업 펀드 300억 조성사업이 행안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4월2일)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4월10일)했고, 4월25일에는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 평가에서 우수에 해당하는 A 등급을 받았으며, 5월29일 전국 기초지자체 처음으로 '2019 청년친화현정대상 종합대상' 수상에 영광도 안았다. 5월12일 FC안양의 홈 개막전은 K리그 2부의 최다관중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시민 참여** 그리고 **소통**=지난해 11월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올해 3월 시장 혁신, 행복도시, 도시 개혁 등 3개 분야 45명의 시민참여위원을 위촉했다. 시민의 시장 참여를 제도적 장치로 마련한 것이다. 동안구에 비해 삶의 질이 부족한 민간 구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민안 현장 시장살'을 지난해 9월부터 매주 수요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운영해 오고 있다. SNS 기자단 25명을 위촉해 실시간 양방향 소통시대를 열었다가 하면, 5월 '청년이 찾아오는 안양'을 주제로 첫 주민 참여 원탁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시의 청년 분야 사업 추진에 목소리를 높일 '청년 정책 서포터즈'(88명)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지역민들의 염원이 담긴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31건에 8억4800만원을 확정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 참여와 소통의 이 같은 행보는 대한민국 도시 브랜드 평판 전국 7위라는 위업을 달성해 했다.

△**청년 친화도시 조성**으로 젊어지는 안양=시는 청년층(19~39세)이 찾아오는 여건 마련을 위한 다양한 시책

을 추진 중이다. 우선, 지난해 11월1일자 조직 개편에서 청년 정책을 전담할 '청년정책관'을 신설했다. 올해 3월5일자로 모범적 청년을 선정해 포상하기 위한 '안양시 청년상 조례'를 제정했다. 전국에선 최초로, 청년 창업 펀드 300억 조성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2019년 4월2일)하며 순항 중이다. 역시 전국 첫 사례로 최근 5년 간 청년 창업 빅데이터를 분석한 '청년 창업 지도'는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금을 갚지 못해 부실 채무자가 되는 청년층을 구제하고자 한국장학재단과 협약(6월17일)을 맺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 이자도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현재 신청을 받는 중이다. 지원은 오는 8월부터 이뤄진다. 취업 면접을 보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장갑 무료 대여와 메이크업 및 헤어 손질을 지원해 준다. 시는 이로 인해 전국 기초단체로는 처음으로 '청년친화현정대상'을 거머쥐었다.

△**다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시는 지난해 11월 일자리 정책 전담기구인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했다. 시 일자리센터를 통해 2만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다는 가 하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73회)과 6회에 걸친 취업 박람회로 800여 명이 일자리를 취득할 수 있었다.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115명이 일할 곳을 찾았다. 특히, 7월 중에는 신 중년층 생애 설계에 도움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다.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계속기 분야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호리바코리아'가 지난해 11월 석수스마트타운에 동지를 틀수 있었다. 또한, 제도에 막혀 어려움을 처한 관내 한 의류기기 제조업체는 시의 규제 샌드박스에 힘입어 판로를 확보하는 기쁨을 누렸다. 베트남과 인도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해서는 153만달러(18억원)와 110만달러(약 13억원)의 계약 및 수출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지역화재인 '안양사랑상품권' 유통 규모를 지난해 100억원에서 올해 23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 밖에, 중소·벤처기업 12개사를 선정해서는 브랜드 육성, 판로 개척 등을 뒷받

치는 토털 마케팅도 지원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 주도**=시는 우선 4차 산업 분야 업무를 주도할 '스마트 시티'와 '4차산업'을 새롭게 설치한 가운데 자율 주행 운행 기반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대호 시장이 올해 2월 이스라엘 현지를 방문해 자율 주행 선도기업과 업무협약을 맺는데 이어 국내 기업과도 MOU를 체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국 삼문협시를 방문해서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과학기술·교류협력을 약속했다. 국내 대학 캠퍼스로는 최초로 지난해 11월 경희대학교에 XR센터를 개소해 이목을 끌었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구 U-통합상황실)의 첨단기술을 인정 받은데 힘입어 실종자물 보다 빠르게 찾아내게 될 복합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한국과학기술·동안경찰서와 협약(11월13일)을 맺었다. 특히, 올해 5월22일에는 신 기술 분야 기업인 등이 주축인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시키기도 했다. 시가 경기도와 공동 개최한 경기과학축전을 겸한 제18회 안양사이버축제(6월8~9일)는 5만 관객이 몰릴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우수 기관 인증에 이어 올해 3월 지방규제혁신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를 향해=나날이 기술 발전을 거듭하는 U-통합상황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로 개편한 가운데 시의 전매특허인 '스마트 안전 귀가 서비스 앱'을 10개 시(의왕·군포·과천·광명·안산·시흥)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시는 또 안전 보안관, 먹거리 안전, 환경 감시, 등·하교 교통 안전, 산별 감시 등을 5개 분야를 하나로 묶은 '안양 안전플러스단'(195명)을 신설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시민 안전에 보다 내실을 기하게 됐다. 안양시민 누구나 대상인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을 올해도 추진한다. 시는 특히 5월30일 발생한 헝가리 유류선 침몰사고 당시 희생자 중 관내 주민이 있음을 파악,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신속히 대응한 바 있다.

△**클린 안양**=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등에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5억5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이 중에서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기레인지

구입비로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개발 현장과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먼지를 다량 배출해 적발된 8건은 드론을 이용한 단속이 빛을 봤다. 건강 취약계층 약 4만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고 전기자동차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테마 숲을 조성한다. 동내 기업과도 MOU를 체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국 삼문협시를 방문해서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과학기술·교류협력을 약속했다. 국내 대학 캠퍼스로는 최초로 지난해 11월 경희대학교에 XR센터를 개소해 이목을 끌었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구 U-통합상황실)의 첨단기술을 인정 받은데 힘입어 실종자물 보다 빠르게 찾아내게 될 복합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한국과학기술·동안경찰서와 협약(11월13일)을 맺었다. 특히, 올해 5월22일에는 신 기술 분야 기업인 등이 주축인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시키기도 했다. 시가 경기도와 공동 개최한 경기과학축전을 겸한 제18회 안양사이버축제(6월8~9일)는 5만 관객이 몰릴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우수 기관 인증에 이어 올해 3월 지방규제혁신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를 향해=나날이 기술 발전을 거듭하는 U-통합상황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로 개편한 가운데 시의 전매특허인 '스마트 안전 귀가 서비스 앱'을 10개 시(의왕·군포·과천·광명·안산·시흥)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시는 또 안전 보안관, 먹거리 안전, 환경 감시, 등·하교 교통 안전, 산별 감시 등을 5개 분야를 하나로 묶은 '안양 안전플러스단'(195명)을 신설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시민 안전에 보다 내실을 기하게 됐다. 안양시민 누구나 대상인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을 올해도 추진한다. 시는 특히 5월30일 발생한 헝가리 유류선 침몰사고 당시 희생자 중 관내 주민이 있음을 파악,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신속히 대응한 바 있다.

△**클린 안양**=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등에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5억5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이 중에서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기레인지

구입비로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개발 현장과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먼지를 다량 배출해 적발된 8건은 드론을 이용한 단속이 빛을 봤다. 건강 취약계층 약 4만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고 전기자동차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테마 숲을 조성한다. 동내 기업과도 MOU를 체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국 삼문협시를 방문해서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과학기술·교류협력을 약속했다. 국내 대학 캠퍼스로는 최초로 지난해 11월 경희대학교에 XR센터를 개소해 이목을 끌었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구 U-통합상황실)의 첨단기술을 인정 받은데 힘입어 실종자물 보다 빠르게 찾아내게 될 복합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한국과학기술·동안경찰서와 협약(11월13일)을 맺었다. 특히, 올해 5월22일에는 신 기술 분야 기업인 등이 주축인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시키기도 했다. 시가 경기도와 공동 개최한 경기과학축전을 겸한 제18회 안양사이버축제(6월8~9일)는 5만 관객이 몰릴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우수 기관 인증에 이어 올해 3월 지방규제혁신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를 향해=나날이 기술 발전을 거듭하는 U-통합상황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로 개편한 가운데 시의 전매특허인 '스마트 안전 귀가 서비스 앱'을 10개 시(의왕·군포·과천·광명·안산·시흥)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시는 또 안전 보안관, 먹거리 안전, 환경 감시, 등·하교 교통 안전, 산별 감시 등을 5개 분야를 하나로 묶은 '안양 안전플러스단'(195명)을 신설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시민 안전에 보다 내실을 기하게 됐다. 안양시민 누구나 대상인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을 올해도 추진한다. 시는 특히 5월30일 발생한 헝가리 유류선 침몰사고 당시 희생자 중 관내 주민이 있음을 파악,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신속히 대응한 바 있다.

△**클린 안양**=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등에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5억5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이 중에서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기레인지



최대호 안양시장.



3월29일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위촉식.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 예비 창업자들이 주인공이 될 청년 기업 100개 육성에 가속도를 낸다. 또 관광과 주변지역을 비롯한 관내 6개 지역 청년 캠퍼스, 다국어로 된 홍보물과 기념품 제작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매진하는 중이다. 올해 안양을 찾는 관광객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 안양시민축제, 반려동물사랑나눔축제, 충혼빛꽃축제, 동편마을 카페거리축제, 두루미 명화마을축제 등이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스마트 안양시정 기관 표창 6회** 넘어=시는 민선7기 출범 1년 동안 6회에 걸쳐 기관 표창과 우수 수상하며 명품 스마트 시정임을 뽐냈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규제 혁신, 재정 집행 추진 등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 기관에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타기도 했다. 감사원 평가 후 조리비 명목으로 50만원권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 받는다. 학교 교육 환경도 향상됐다. 시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교육 환경 지원금을 47개소에서 67개소로 확대하고, 학교 실내 체육관 설치도 지난해 3개소에서 올해 6개소로 늘린다. 시는 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안양형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다. 전국 최초로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해 매년 5월 네 번째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운영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5월25일 선포식을 개최했다.

△**힐링과 문화가 있어 행복하다**=시는 FC안양 홈 구장인 안양종합운동장에 가변석(3488석)을 설치하고 천연잔디를 전면 교체하는 등 축구 팬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이는 유료관 중 수와 연간 회원권 판매액 향상으로 이어졌다. 종합운동장과 호계체육공원 등의 공공체육시설을 매월 첫째 주 일요일마다 무료 개방하는 '스포츠타일'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하수 처리시설을 지하화하며 조성된 안양새물공원은 인공 암벽장을 비롯한 다양한 체육시설과 산책로, 녹지 등을 갖췄다. 지난해 7월8일 개장한 삼막대전공원은 인공암벽이 즐거움을 나누는 공간으로 정착했다. 최근 안양예술공원이 태국 아이들 그룹 뮤지카디오 활영지로 소문나면서 안양을 찾는 관광객이 부쩍 늘어난 편이다. 시는 안양예술공원 통합 안내 체계 구축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4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관광 전문 SNS 인플루언서와 여행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캠퍼스, 다국어로 된 홍보물과 기념품 제작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매진하는 중이다. 올해 안양을 찾는 관광객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 안양시민축제, 반려동물사랑나눔축제, 충혼빛꽃축제, 동편마을 카페거리축제, 두루미 명화마을축제 등이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스마트 안양시정 기관 표창 6회** 넘어=시는 민선7기 출범 1년 동안 6회에 걸쳐 기관 표창과 우수 수상하며 명품 스마트 시정임을 뽐냈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규제 혁신, 재정 집행 추진 등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 기관에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타기도 했다. 감사원 평가 후 조리비 명목으로 50만원권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 받는다. 학교 교육 환경도 향상됐다. 시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교육 환경 지원금을 47개소에서 67개소로 확대하고, 학교 실내 체육관 설치도 지난해 3개소에서 올해 6개소로 늘린다. 시는 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안양형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다. 전국 최초로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해 매년 5월 네

관광 활성화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안양예술공원 종합발전 계획을 용역 중인 가운데 예술작품을 연계한 AR과 VR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0월 개최되는 제6회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관광 안양의 이미지를 한껏 드높이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중앙공원, 미관광장, 시민대로를 시청사, 평촌공원을 연계해 보행자 중심 가로 환경으로 조성하는 '안트럴파크'도 구체화할 계획으로 있다. 수리장애인복지관 옆에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도 추진한다. 또 2021년까지 4개소를 선정해서는 어린이들이 스스로 자연을 터득할 수 있는 생태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균형적 발전 도모) 안양8동 명하마을, 박달동, 석수2동 등 3개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 안양8동 냉천지구 주거 환경 개선, 안양8동 수암천 정비와 관광 및 석수역 주변 도시 개발사업도 하나하나 이뤄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1년까지 노후한 6개 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석수3동, 비산2동, 안양8동, 비산동, 호계2동)을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1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PPT 자료를 통해 직접 성과와 비전을 밝히고, 그간의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했다.

(행복한 힐링도시) 안양예술공원

박정남 기자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

열린의정, 학습의정, 협치의정 의정활동으로
시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